후원회 소식

통권 214호 | 발행일 2009. 8. 20 | 발행인 김호현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통일의 주춧돌! 큰별이 지다.

▲ 이 땅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남북사이 화해협력과 자주통일을 위하여 한 평생을 바치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2009년 8월18일 오후 1시 43분 서거하셨습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목 · 차 ·

8월의 시 · 김대중 서거에 대하여 진 관 • 2 / 우리의 주장 권오현 • 3 / 출소 장기수를 찾아서 · 이두화 선생 김양희 • 6 / 기고 · '을지 프리덤 가리언' 연습중단 · 부르스 개그논 • 12 / 기고 ·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 임미영 • 14 / 국제인권연대 • 18/ 감옥에서 온 편지 장민호, 이경원 외 • 20 / 면회기 노혁 • 24 / 방청기 권오현 • 26 / 회원마당 김혜순 • 29 /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1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44 / 재정 보고 • 47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48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0@gmail.com

김대중 서거에 대하여(추모시)

진 관 | 불교인권위원장

우리의 영혼이여 민주화의 혼령이여
그 이름을 우리는 조국민주화의 국토위에 던지고
뜨겁게 타는 자유의 화신이 되어 영원히 잊지 못하리
처음 우리가 만나던 그날에는 세상이 온 통 어둠으로 가리 우고
절망하며 땅을 치던 날 철창이 담장을 두루고 있던 집
그 집 앞에는 언제나 순사들이 서서 지켜보고 있던 집
그래도 그를 만나야 한다고 두려움도 없이 만나던 그 날
그날을 기억하며 가슴을 치는 한을 달래어 본다.

처음에 그 이름을 가슴에 남긴 이래 한 번도 잊어 본적 없는데
잊으려 하면 잊을 수 없는 마력이 있는 김대중 이름
삼천리 금수강산을 새한마리 되어 날더라도
이 땅에 민주주의를 위하여 살기로 맹서한 언약
조국을 하나로 하려고 몸부림치던 그 사상
아무리 험한 황토밭 길이라도 걸음을 걸었던
우리의 영원한 조국사랑의 스승이여
이제는 만날 수 없다는 인연으로
눈물이 앞을 가리 운다,

아 이제 그 이름을 가슴에 묻고
그 옛날 정치적인 대결이 없는 곳
영혼의 국토 위를 고난의 강물처럼 흘러
흘러가는 그 곳에 잠들 영혼이 되어 가는데
무엇이 우리들을 그토록 가슴 치게 하나
절망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곳인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위하여
이 국토위에 민주주의의 꽃을 뿌리고
너무나도 평온한 마음의 강토에
민주화의 깃발을 꼽았다

광복절 사면의 우선 대상은 양심수이어야 한다

-8.15광복절 민생관련 150만 명 특별사면과 관련해-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8.15광복절에 민생관련 형사피의자 150만 명을 특별사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농·어민과 서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생계형 운전을 하다 면허가 정지당한 사라들이라고 했다.

이들 사면 대상자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이고 생계 과정에서 고의 아니게 법규를 어겼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생계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면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할 것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형사피의자들은 이들만이 아니다. '의도된 범행'의 경우에도 학력, 인종, 성별, 장애 등 차별로 인해 일터를 마련할 수 없었던 경우. 주린 배를 견딜 수 없었던 경우 그리고 시급을 다투는 병원비 마련 등 생존의 한계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담을 넘었던' 생존형 범법자들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 생계형 또는 생존형 형사 피의자들은 양심수 범주에는 들지 않지만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냉혹한 무한경쟁에 내몰려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해왔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차별사회가 안고 있는 빈곤의 악순환이 빚은 범죄였다는 데서 넓은 의미의 정치적 피해자(정치범)라 할 수 있으며 마땅히 사면과 함께 생존조건의 사회적 보장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들이 국가시책의 간접적 피해자들이라면 사회정의를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인신구속 하는 등 국가권력에 의한 직접 피해자들이 있다. 바로 양심수들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생계형 사면을 말하면서 실제로 범죄 유형에조차 들 수 없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사면의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양심수를 제외시켰다.

올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사면을 하지 않았던 정부는 뒤늦게 6월 4일 '일반영세민'과 '생계형 운전기사' 등 282만 명을 특별사면 했고, 8.15광복절을 맞아 조·중·동 등 언론사 사장급 5명, 정치인 12명, 고위공직자 10명, 지방자치단체장 12명, 재벌총수들과 기업체 대표 74명 등 권력형 부정비리사범을 포함한 형사피의자 10,461명과 선거사범 1902명, 모범수형자 702명, 징계공무원 228,375명 등 모두 341,86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과 징계사면, 면허제재감면 등 특별사면 하였지만 정작 반민주 악법으로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는 단 한 사람의 석방도 감형도 사면·복권도 없었다.

지난 시기 김영삼 정권이 사회여론에 밀려 양심수 일부에 대한 취임사면을 한 것 말고는 임기 5년 동안 4269명(이중 국가보안법 적용은 1972명)의 양심수를 구속했지만 단 한사람도 양심수로 인정하지도 사면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가고 있는 듯싶다. 경제회생과 국민화합이란 이름으로 감행된 이 같은 의도된 정치적 사면은 사회정의와 가치체계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친재벌·반노동의 전형이면서 사면의 본래 의미를 훼손시켜 사면권 남용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그렇다면 사면의 본디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선 사면(赦免)의 법적 의미는 국가원수의 특권으

로 형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하게 한다는 사전적 의미도 있고, 절대군주시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은사(恩赦)처럼 사면은 대상자가 한결같이 잘못(범죄)을 전제로 한 개념이다. 물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지은 죄가 밉지 사람의 존엄성은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일정한 교화기간을 거쳐 사회복귀와 생활전선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감옥은 죄인만 가는 데가 아니었다. 옛날에도 그러했고 오늘에도 이 잘못된 관행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예로써,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 몰린 사람, 종교적 교의 때문에, 새로운 학문이론으로, 사상·철학 등 주의주장으로, 인종과 민족차별로, 문화양식의 차이로, 신분과 성차별로, 사회체제 지향과 생존권 투쟁 등으로 감옥에 갇히고 있었다.

이들은 과실이었던, 좀도둑이었던, 파렴치범이었던 흉악범이었던 권력형 부정비리 사범이었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신하며 양심적으로 범죄행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로 양심수들이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하고 벌을 면하게 하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부당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있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며 사면에서 우선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면은 역사발전과 사회진보, 도덕과 가치기준 확립, 민주주의발전과 인권보장, 사회정의 구현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사면의 우선 대상은 양심수들이다.

양심수란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다 구속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개인이나 소수이익이 아닌 다수의 이익, 바로 공동선을 위해 양심에 따라 활동한 일로 고난당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이 정치사회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치수(범)라고도 하고 자신의행동이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확신수라고도 한다. 국제 인권 기준에 따른 양심수 개념이 있지만 나라마다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시간 감옥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6.15, 10.4선언 이행 등 자주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구속된 사람들과 전국운수노조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을 비롯한 노동3권 보장과 최소한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 구속된 노동자들, 용산 4구역 철거민 대책위 이충연 위원장을 비롯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피해자 등 주거권을 위해 활동한 철거민들, 광우병 우려 등 국민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시위를 했던 사람들, 쌍용차 쟁의 노동자, 이주 노동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양심에 따른(종교적 신념 포함) 병역거부 양심수 등 550여명이 갇혀있다. 여기에 쌍용차 노동쟁의 관련 노조원의 무더기 구속으로 양심수 숫자는 더욱 늘어 날 것이다.

이들은 범죄인이 아니다. 처음부터 구속되어서는 안 될 양심수였다.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면복권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인권 보장의 문화선진국이라면 이러한 양심수를 잡아 가두는 야만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오랜 권위주의시대 수많은 양심수들이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주 악법으로 구속되고 사법살인까지 당하는 반문명적 야만행패가 자행되었었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었고 그리고 양심수가 있었다. 양심수를 잡아 가둔 부당한 정치세력은 끝내 역사와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이 그러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노 신군부독재 정권도 민중항쟁에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성장하는 민중역량이 마침내 반세기만의 실질

적인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어냈었다.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과 억압과 공포로부터의 점진적 해방 등 완벽하진 않았지만 사상・양심의 자유・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3권 등 기본인권이 보장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남북 사이에 불신과 대결시대를 끝장내고 화해와 협력시대를 연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 평화선언을 이루어냈다. 꽉 막혔던 남북 사이 땅과 바다, 하늘 길이 열리고 한 해 수십만이 남북으로 오가며 자주통일을 앞당기는 길을 닦고 있었다.

금강산・개성관광 길이 열리고 남북으로 흩어져 살던 가족들 상봉이 이루어 졌다. 개성공단에서는 남북 노동자들이 함께 제품을 생산했으며 언제나 긴장이 감돌던 서해해역엔 서해평화특별지대 설치를 합의했다.

그러나 10년에 걸친 민주정부가 잘 한 것만은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파탄을 물려받은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에 빠졌고 노무현 정부는 더욱 심화시켰다. 부동산 가격 상승, 비정규직 확산과 청년실업, 무한 경쟁 속에 중산층이 몰락하며 사회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이 같은 전반적인 불안한 경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실패, 이른바 대북송금특검 등으로 수구냉전세력의 발호는 이명박 정부의 출현의 길을 열어 주었다. 지난 시기 악명 높은 군부독재의 정치유산을 고스란히 받아안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종하며 재벌・기업의 지지기반에 뉴라이트 이념을 배경으로 형성된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을 복원하겠다는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순서 없이 몇 가지 꼽는다면 한미동맹 강화와 비핵・개방・3000 등 친미사대 외교와 반북대결정책,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부자감세 등 친재벌・기업정책, 광우병 우려 촛불시위에 대한 폭력 탄압 등 민주주의 압살정책, 용산 철거민에 대한 살인진압 등 반민중・반인권 정책,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등 반노동 정책, 진보연대・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 등 진보단체 탄압정책, 국가보안법 강화와 실천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통일운동(단체)탄압 책동, KBS 사장축출, YTN 사장 낙하산 인사, MBC 피디수첩 탄압, 특히 미디어 악법 날치기 처리 등 정권연장을 위한 언론장악책동 등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압살, 경제파탄과 민중생존권을 유린했다.

여기서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정책의 전형적 사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최근 사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어떠한 국가권력으로 부터도 독립성을 가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시도를 했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유엔결의로 채택한 독립성의 원칙을 침해하는 대폭적인 기구축소를 강행했으며 인권문외한으로 알려진 인사를 위원장으로 전격 임명하는가 하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유력한 의장국 후보를 사퇴해야 했던 국제적 망신을 사는 으로 조롱거리가 된 인권후진국 모습을 보였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사면권 행사 때마다 양심수를 제외시키는 이명박 정권부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반인권 정책이 양심수 사면의 당위성을 지우지는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모든 양심수를 선별 없이 석방하고 사면・복권하라.

촛불시위와 용산 범대위 활동가 등에 대한 수배조치를 전면 해제하라.

출소한 모든 양심수들을 사면・복권하라.

쌍용자동차 농성 노조원에 대한 무더기 구속을 철회하라.

이글은 8월 6일 통일뉴스에 기고했던 글입니다.

'을미대 고향집을 그리는 여전사 이두하 선생님을 찾아서'

김양희 | 통일뉴스 기자, 회원

8월이지만 햇살이 뜨겁지만은 않다. 나주까지 KTX로 가도 3시간이 넘게 걸린다지만 화창한 날씨에 오랜만의 장거리 여행인지라 인터뷰 가는 길이 오히려 상쾌하기까지 했다.

광주에 한 번 갈 수 있냐며 이두화 선생의 인터뷰를 제안 받은 것은 벌써 두 달 여가 지났다. 그러나 여러 사정에 의해 만남은 미뤄졌고 평양보다 조금 먼 나주(정확히 선생은 광주가 아닌 나주시 남평읍에서 살고 있었다.)에 이제야 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전지식이라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의 빨치산이라는 것뿐이었다. 사전지식 하나 없이 겨우 몇 시간 듣고서 선생의 삶을 잘 전달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저 멀리서 이두화 선생이 남편인 최장렬 선생과 함께 우리를 마중 나왔다.

이두화 선생이 82세, 최장렬 선생이 91세, 나이를 듣지 않았다면 70대쯤으로 보일 만큼 정정한 모습이었다. 반갑게 대하는 선생들의 모습에 걱정이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과연 내가 선생의 삶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교육자로 항일 투쟁에 나섰던 아버지'

이두화 선생은 1928년 8월 16일, 일제의 조선 반도 침략이 거셌던 때 전북 삼례에서 태어났다. 선생의 아버지는 교육자로 당시의 지식인의 양심에 따라 항일 투쟁에 늘 선두로 나섰고 일제의 탄압에 이리 저리 떠돌아야 했다.

전주 제일 보통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거문도의 사립학교 교장으로 전근을 갔고, 이후 항일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났다. 이두화 선생의 나이 8세 때 흑룡강 가까이에 있는 자무스에 자리를 잡은 아버지는 후원을 통해 직접 흙벽돌을 쌓아가며 '화광국민학교'를 세웠다. 구름화에 빛광, 아버지가 지은 이름대로 화광국민학교는 당시 만주의 가난한 조선 사람들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됐다.

"자무스는 시베리아에 인접한 곳으로 겨울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엄청 추웠습니다. 이곳에 조선인을 위한 학교는 하나도 없었어요. 화강국민학교가 유일한 곳으로 조선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던 일본, 만주인들에게 기부금을 모아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 학교의 의미는 단순한 교육공간의 의미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두화 선생은 아버지를 따라 간 거문도에서 1년 있다가 아버지가 만주로 떠나시자 할아버지가 계신 함경남도 함주군에서 1년을 학교를 다녔고 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계신 만주로 가 화강국민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러나 6학년이 되던 해에 일본인들의 모함에 아버지는 화강국민학교를 만주국에 내놓고 용정으로 나와야 했다.

용정에서도 아버지는 친일파가 조선 여성 교육을 위해 세운 여학교 부교장으로 일을 했다.

언제나 교육과 함께 한 삶이었다.

'고3에 해방, 해방 후 조선으로'

용정은 도시는 작아도 조선의 여고가 2개, 남고가 3개에 이를 만큼 교육 도시였으며 의대까지 있어 독립투사들이 와서 치료하고 간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다.

이곳에서 광명여고에 입학한 선생은 고3때 1945년 해방을 맞았다. 당시 용정까지도 일제의 폭압은 거셌다. 선생도 전쟁이 조금만 더 지속됐더라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 회상했다.

"내가 고3때 4학년 여학생들과 부교장님은 심양 방직공장으로 보내졌는데, 정신대로 끌려간 것입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어떻게든 전쟁터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해 징집영장이 나온 큰오빠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 역시 전쟁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끌려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해방을 맞고 1946년 가을 드디어 선생의 가족은 조선으로 되돌아 올 수 있었다. 아버지는 나진여고 교장으로 부임을 했고 선생은 용정에서 고3이었으나 조선에서 다시 고3으로 전학을 했다.

"나는 어찌된 게 늘 6개월씩 남기고 졸업을 못하게 돼 남들 보다 2년 늦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화강국민학교를 내놓고 용정으로 나오시는 바람에 용정에서 다시 6학년에 편입을 했고 고3때도 조선으로 나오다보니 다시 고3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의 성적은 누구보다도 뛰어났고 1947년 9월 1일에는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조선사학과에 당당히 입학을 했다. 워낙 선생의 성적이 좋기도 했지만 이는 북조선이라는 환경과 아버지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북녘은 워낙 학구열이 뛰어난데, 북청물장수의 자녀교육열에 대해서 널리 알려졌을 정도입니다. 특히 사회주의자인 나의 아버지는 결혼을 하기보다는 네가 학교에 가고 싶으면 학교에 가라고 했어요. 5남매 모두 늘 수석을 차지했고 공부를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다 보니 이두화 선생은 북녘 최고 학부를 다니게 된 것이다.

'애국미 헌납으로 지어진 학교'

당시 김일성종합대학은 학부 10개, 학과가 30개 정도 됐으며 2학년에 올라갈 때 학부서 갈라져 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학교 건립 시기가 해방 이후였지만 어려운 시기라 인민들이 애국미를 헌납해 학교 건물을 하나 둘 새로 지었다. 이두화 선생이 2학년이 돼서야 모란봉 뒤에 5층 건물이 새로 지어졌단다. 당시 서평양까지 전차를 타고 30분을 걸어 학교에 도착했었다. 이전에 대동공전 한 교사를 빌려 김일성종합대학의 식당, 도서관, 기숙사 등으로 활용했다. 북녘의 교육열은 대단해 김일성종합대학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다.

"당시 식량 사정이 어려운데 김일성종합대학의 기숙사에는 3끼 식사는 물론이고 빵이 한 번 간식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은 국비장학생으로 기숙사비가 없음은 물론이고 당시 사무원 월급이 900원이었는데 500원씩 생활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여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미약해 해방 후 남녀평등의 기치가 내세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여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러나 선생은 늘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일제시대에는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 교과서도 틀

렸고 과목도 가사, 재봉, 육아 정도만을 배웠어요. 그러다보니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인수분해도 못하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시험은 교수님 3명 앞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나오는 문제를 구술로 대답을 해야했어요. 3문제씩 대답을 해야 했고 이후 보충문제로 교수님들이 질문을 진행했는데 여학생이라고 봐줍니까? 그러다보니 얼굴을 감싸고 우는 학생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난 공부하는 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행복했던 대학생활, 그리고 전쟁'

그때 김일성종합대학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이라 교육적인 면에서 특히 좋았단다.

"여기처럼 1, 2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5점 만점으로 최우등은 5점, 우등은 4점, 보통이 3점, 그리고는 2, 1점, 낙제 순이었지요, 이때 학급의 75%가 우등생이었고 학부별로는 철학과 2학년이 90%학생이 우등생이었을 정도입니다. 공부를 열심히는 하되 동료들과 함께 하는 방식이지 상대방과 경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지금 여기 아이들이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힘들 것입니다."

선생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당시 대학생활도 소상히 기억을 해냈다.

"국사 교수는 박시형 선생으로 국기 강좌장을 하셨고 고려사 등을 강의 하셨습니다. 김석형 선생이 학부장이었고, 국제 외교사는 이도하 선생, 박일 선생은 내가 1학년 때 막스레닌주의를 강의하셨지요."

그러던 중 선생이 3학년 때(학년이 아니라 8학기제인데 6학기 째였다고 했다.) 6월 한달 내내 시험을 보는데, 6학기 마지막 과목의 시험을 보던 중 6.25전쟁이 일어났다.

학생들은 북조선의 실체와, 토지개혁, 남녀평등, 징병제, 로동당 강령을 전하는 정치공작대로 보내지게 되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보내지고 저는 마지막쯤으로 남으로 내려왔는데 그때가 1950년 7월 28일로 평양역에서 기차타고 수색에서 내려 남산 대총여관에서 묵었었습니다. 당시 여동생도 김일성종합대학의 화학부 2학년생이었는데 동생은 전북으로, 저는 전남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끝. 동생은 그 때 얼굴을 본 것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생사조차 모른다. 다만 그때 산에서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만 든다고 한다.

'고3때 입당, 그리고 남에서는 전남지역 입산'

모든 학생들이 정치공작대로 보내졌던 것은 아니었다. 이두화 선생은 이미 고3때 '조선로동당원'으로 가입을 했다. 고3때 학생이라면 모두 들어간다는 '민주청년동맹'에 들어갔다. 어느 날인가 학교 궐기대회에서 토론을 하는데 이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남조선은 정신적으로까지 힘드니 돈을 보내 무장을 돕자'고 했고 이를 지켜본 담임선생님과 아버지 등의 추천으로 1947년 5월 17일 입당을 했다.

이런 인연으로 남으로 내려온 이두화 선생은 전남 무안으로 와서 월출산에 입산을 한다. 전남으로 파견

된 사람은 22명이었으며 이후 전남 화순 백아산에 도당을 차렸고, 이 때 정귀석 간부부장과 박찬봉 조직부장 등이 당증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보장을 못하니 모두 우선 내라고 해서 모두 수거를 해갔고 그때 냈던 당증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

이후 광주도당 선전부에 배치됐고 선생은 도당학교의 장흥 분교에 양승혁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 연구원생(대학원생)과 함께 강사로 일을 하게 된다.

한 달 여가 지난 후, 인천에 맥아더가 상륙하면서 무안 백운산에 입산, 이때부터 통신소에 들어가 이북방송을 듣고 도당학교에서 일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산에서의 생활이 넉넉한 것이 있겠냐만 강의 자료도 없어 직접 펜으로 써서 책을 만들고 칠판 하나 없어 입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당시 백운산 도당학교에는 북에서 온 세 사람이 배치를 받았는데 고평준 선생은 당일꾼으로 막스레닌주의 기초를 가르쳤고 청진교원대 학생인 구봉회 선생이 국어를, 나는 소련에 대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4년 동안의 산 생활, 지리산에서의 검거'

1950년 11월 입산한 백운산도당학교의 생활은 1953년 봄까지 지속됐다. 아무리 공기가 좋아도 산이라 건강이 나빠져 천식이 시작됐고 숨이 차, 산에서 걷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 "사실 남녘에 오기 전에도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당창건기념일이나 인민군 창건일, 광복절 등에는 시가행진을 하곤 하는데 행군을 할 때면 건강이 따르질 않아 늘 힘들어했어요. 오히려 밑에 동생은 똑같이 행군을 하고도 하나 힘들어 하지 않았는데 나는 늘 발바닥과 다리가 아파 괴로웠어요. 6.25 이후에는 하루하루가 모두 고생이었습니다."

1952년 대 공세에 학교는 전부 분산이 되었고 그 후로는 1953년 까지 전남도당 선전부 일을 맡았다. 1953년 봄 대공세에 순천의 한 야산에 시당을 차리고 2달 정도 있다가 천식으로 몸이 좋지 않아 1953년 11월 지리산에 있는 도당으로 옮기게 됐다.

지리산의 도당에서는 노고단 밑 구례군 마산면당에 배치됐다. 그리고는 1954년 2월 누군가의 자수로 마산면당이 포위되었고 이때 선생과 소년 하나, 위원장이 함께 빠져나와 자수를 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다 끝까지 자수를 하지 말자는 선생의 말을 둘이 받아들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선생을 산에 두고 둘이 보급을 위해 둘이 나갔다가 결국 자수를 했단다.

선생은 노고산 산동면에서 결국 203경찰부대에 잡히게 됐는데 어찌나 먹지도 못하고 몸이 좋지 않던지 당시 몸무게가 40kg이 채 되지 않을 정도였다. 햇수로 5년 만으로 꼬박 4년여를 산에서 지낸 탓이다.

"늘 수류탄을 하나 가지고 다녀 체포가 될 때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포위되는 순간에 보니 수류탄이 없어졌어요, 만약 가지고 있었다면 죽었을 겁니다. 당시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했냐면 잡힌 후 경찰부대원이 업고 내려왔는데 산동면 부락사람들이 '못 먹고 떨었나보다'면서 불쌍해하곤 했지요. 이때는 빨치산 검거도 막바지일 때여서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가 있으면 일일이 산 아래로 끌고 오기가 힘들어 산에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나도 전혀 움직이지 못했으면 죽였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괴로웠던 징역생활'

남원포로수용소의 군법회의에서 선생은 5년 집행유예,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10명씩 한꺼번에 받았는데 선생이 4번째로 앞의 3명은 모두 사형이었다, 선생은 그나마 전투원도 아니고 빨치산도 마지막이라고 형량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여자도 고문이 많았던 시기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전주형무소로 옮겨져 1달을 복역을 했는데 2월 21일 박영달 전남도당위원장이 사망을 했으니 확인을 하라고 연락이 왔다. 경찰 측에서는 위원장이 분명한지 확인이 필요했고 함께 했던 동지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은 그의 몫이었다.

"삼례면 초등학교 운동장을 들어서는데 저 쪽에 교실이 있는 시골 목조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목조건물 현관 앞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두 빨치산들의 시체로 꽉 차 있었습니다. 박영달 위원장은 물론이고 연락병 소년과 박순애라고 밥을 해주던 여자 등 아는 사람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해주었지요."

함께 하던 동지들, 그리고 이름도 얼굴도 몰라도 뜻을 함께하던 이들의 시신을 확인하는 것은 또 다른 고통이었을 것. 그는 그렇게 징역을 살아냈다.

'또 한 번의 징역생활'

선생은 다행히 바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에서 경남 민청부위원장을 한 이봉갑이 낸 헌책방에 산에서 함께 한 사람들이 책을 사러 자주 다니면서 1955년 8월 '간첩들과 사귄다'는 혐의로 화순경찰서에서 서울로 와 연행을 했다. 이봉갑은 나침반을 가지고 있었고 식량을 좀 사두었다는 이유로 '이북으로 가려고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종로경찰서에서 물고문, 전기고문까지 받은 선생은 3년의 실형을 선고 받는다.

그렇게 해서 꼬박 3년을 살고 1958년 12월 24일 나오니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남녘에 친척도 변변히 없었던 그에게 일제시대 경성제대를 나와 외국어대학 영어교수를 했던 외삼촌은 당시 5000원이라는 큰돈을 해줘 광주로 가서 3000원으로 방을 얻고 나머지로 사업을 구상했다.

선생은 다행히 김일성종합대학출신이라는 실력을 내세우며 광주금호미용기술학교 강사를 하다가 광주에서 징역을 살면서 1달 배운 편물 기술로 편물점을 차리고 강사를 했다.

"가게를 편물 기계 1대로 시작하면서 배울 사람은 편물 기계를 1대씩 가져오게 하면서 직접 짜주기도 했지만 이익은 거의 없었어요. 헌 스웨터를 풀러 새로 짜면 새 실이 꼭 들어가는데 얼마 되지 않는다고 돈을 달라고도 못하고 순모실로 짜달라면 화학섬유하고 섞어 짜는 그런 흔한 상술 한번 부려보지 못했지요."

'최장렬 선생과의 결혼'

32세이던 1961년, 경찰이 선생을 자꾸 불러댔다. 꽃 같은 처녀에 최고학부인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이라는 지성미가 더해진 그를 가만 놔두질 않은 것이다.

"한번은 도 경찰국장이 차까지 보내서 오라고 합디다. 경찰국장이 자기도 김대출신이라며 반갑다고 보자는 것이었어요. 막상 가보니 김대를 다니지도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던 중 폐렴이 걸렸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시기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 나이차가 좀 나긴 했지만 선전부의 지도원으로 교육신문사에서 일한, 그리고 무엇보다 산에서의 동지라는 점이 의지가 됐다.

"폐렴으로 앓고 있는데 약을 사서 슬며시 밀어 넣고 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합치자 했어요. 경찰국장이 자꾸 부르는 것도 싫고 어서 빨리 가정을 꾸려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두화 선생과 최장렬 선생은 1961년 결혼을 하고 1962년 아들을 낳았다. 아들은 한번을 읽고 외우다 틀린 부분을 지적하면 두 번째엔 꼭 외우고 말 정도로 영리했다.

만 3살 6개월만에 학교에 갈 정도로 똑똑하고 신동으로 불렸던 아들은 이들 부부의 자랑이었다.

'을밀대가 보이는 고향집에 가는 것이 소원'

이두화 선생은 1966년 곡성군 옥과고등학교 국사 선생님으로 일을 하게 된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도 역사를 전공했고 당시 대학까지 나온 교원이 그리 많지 않을 시기였다. 선생에게 배운 학생들은 각종 경연대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 교사로서도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던 중 1983년 4월 금쪽같은 아들이 기관지 천식으로 곁을 떠났다. 아들이 죽고 또 능력이 뛰어남에도 교원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학교에 부임한 교사의 초봉이 13만원이었는데 강사는 3만원으로 차별이 심했다. 그런데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이라고 여기고 열심히 하던 일이었다. 그만큼 아들의 부재는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리고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

이제는 남평으로 이사와 농사꾼이 된지도 벌써 10년이 넘는다. 땅을 빌려서 메론, 애호박 등을 심고 생활보호대상, 경로 연금으로 생활한다,

그러던 중 선생도 2002년에 기관지천식에 걸리고 또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년 내내 약을 달고 살아야 한다. 선생은 지금도 가장 바라는 일이 통일이고 2차 송환 신청을 낸 상태로 가족을 만나고 신념을 지킨 고향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그러나 선생에게는 고향은커녕 지난 정권 남북관계가 한참 좋았을 때에도 남들 흔히 가는 금강산과 평양에도 가보지를 못했다.

"북에 두고 온 가족은 아버지가 1901년생이고 이헌적, 법 헌에 나갈 적자를 써요. 어머니는 한후남으로 두터울 후에 남녘 남을 쓰고요.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같은 서당의 친구로 자식들을 결혼 시킨 것입니다. 큰오빠는 이득재, 작은 오빠는 이광재, 외무성에서 일하고 있다더라구요. 여동생은 이월화, 남동생은 이양재. 아버지가 사셨으면 100세가 넘으실텐데 어디 그게 쉽겠어요? 그렇지만 다른 가족들은 남아있을 텐데 어서 만나고 싶어요. 내가 살전 곳은 평양특별시 서구 기림 1리로 모란봉 기자림 건너고 옆에는 공설운동장이 있어요. 집에서 을밀대도 보였습니다."

덧붙이는 글

가족도 집도, 그리고 그간 살아온 삶을 하나도 잊지 않으려고 일부러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까?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내 선생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의 정황은 물론 날짜까지 일일이 기억하고 있었다.

4년여의 산중 생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는 물음에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겨울만 되면 전기난로는 물론이고 이불 속에서도 힘든데 말이죠"하며 웃는다.

삶이 그리 즐거웠을 때가 많지 않았다는 이두화 선생. 분단으로 인해 또 개인적으로도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곱고 참하게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 여리고 연약한 몸으로 어찌 그 힘든 삶을 꼬박 다 살아냈을까? 이런 선생의 삶을 한참 부족한 내가 글로 풀려니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나 선생에게나 모두 죄송할 따름이다.

'을지 프리덤 가리언' 연습중단
Gagnon Speech

부르스 개그논 |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 편집자 주

이글은 8월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른바 '09을지 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 반대하여 성남시소재 청계산에 있는 한미연합사 전쟁지휘고(탱고)앞에서 진행된 '한반도 평화와 북미 남북대화 걸림돌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중단 촉구 집회'에서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넷워크 사무총장 부르스 개그논(Bruce Gagnon)씨의 연설문입니다. 개그논씨는 우주이슈에 대해 25년간 일해왔으며 1992년 우주의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넷워크를 공동창설했으며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평화산업전환 외에도 전 세계적 군비 축소 및 복지 증대를 위한 전 지구 민중연대 운동을 강조해왔으며 코리아반도를 포함 미사일 방어망 이슈의 핵심지역인 동아시아의 평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실험한다며 윽박지르고 힐난합니다. 저는 모든 핵무기에 대해 반대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장 시도를 중단하라고 훈계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미군은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핵미사일을 태평양의 아름다운 크와잘리엔 환초를 향하여 시험 발사하였습니다. 또한 8월 23일에 유사한 핵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그 우방이라는 나라들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고 북한이 하는 것은 잘못이라 하는 것입니까.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은 공격적인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전적인 훈련은 오바마 대통령이 천명한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없애고 싶다"는 선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임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제공격 훈련을 계속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재래식 무기를 계속 하여 증강하고 차원을 높이며 개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이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아주 작은 핵무기마저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PAC-3의 배치를 확대하고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가져올 전구고고도지역방어체제(전구 미사일 방어체제)와 해군 이지즈 구축함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MD(미사일 방어체제)는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무엇보다 선제공격을 위한 칼로서 밀어붙일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며, 그다음이 있을 수 있는 어떠한 반격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로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사일 방어 체제"는 지금 미국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을 포위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MD시스템의 완전한 배치를 허용한다면, 이것은 전세계의 핵위기를 풀 수 있는 진정한 희망에 대해 작별의 키스를 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가 지구를 지배할

것이라 말하며 우주에서의 무기경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우주를 제어하고 지배하며" 다른 나라가 우주에 접근하는 것은 "막기" 위하여 미국우주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우주사령부는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전쟁행위는 우주기술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합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이른바 "충격과 공포" 전쟁 시 개전 초기 공격의 70%의 무기가 우주기술에 의해 목표로 유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북한을 겨냥한 한미군사훈련은 인공위성 기술이 조정하고 유도할 것입니다. 이는 우주를 이용한 더 많은 전쟁행위의 리허설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국가 예산을 전쟁을 위한 우주기술 개발에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수산업에게는 엄청난 사업이며, 커져가는 강대국의 전지구적 군사동맹(미국 중심의 군사동맹)을 굳건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단체는 이러한 지구상과 우주를 이용한 새로운 무기경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화운동을 하는 우리의 전세계 150개 회원단체는 우주기술이 어떻게 극우산업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오바마가 당선되었을 때도 들었습니다. 이는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일 뿐입니다.

조지 부시는 못된 카우보이였습니다. 오바마는 좋은 카우보이일 수 있지만 아직은 미국 군산복합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카우보이입니다.

우리는 한-미-일 핵 군사동맹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미 군사제국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배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전지구적 전쟁기계를 바꾸어 진정한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없는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세계의 모든 자원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이 어머니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ugust 17

알립니다.

8월 회원 시사강좌

• 일시: 2009년 8월29일 • 장소: 낙성대 만남의 집

• 강사: 강정구교수님(동국대교수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 주제: 한반도평화, 통일, 외세, 핵위기의 진실 말하기

■ 여름 막바지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단결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임미영 | 양심수후원회사무국장

'해고는 살인이다'

5월 21일, 쌍용자동차 법적관리로부터 상하이차 매각이라는 먹튀자본의 전형을 보여온 쌍용자동차가 드디어 그 본색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무자비한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들어갔다. 이에 맞서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에 맞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한상규지부장과 해고자들은 단결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의지를 다지며 장기파업에 대비하여 농성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평택공장 점거파업에 돌입하였다. 사측은 강제해고를 단행하면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기껏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알리는 불법을 자행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자본의 폭압적 탄압은 해고노동자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을 정신적 육체적 질환으로 또 심지어 죽음으로 까지 몰아갔다.

사측은 해결의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고 보란 듯이 5월 31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부로 직장폐쇄조치를 강행하여 노조조합원의 회사출입을 막아나섰다.

"해고는 살인이다." -이 아픈 문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노조는 정부와 사측의 책임 있는 해결책을 요구했다. 이미 노조는 ▲상하이소유의 지분소각을 통한 법적 정리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총고용 유지(5+5와 3조 2교대)" ▲'노조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기금 12억 출연, ▲C200공사 및 연구개발비 1000억 원에 대해 쌍용자동차지부가 담보, ▲산업은행 우선회생 긴급자금 투입을 요구하며 노사상생의 길을 제시한 상태였다. 그러나 사측에서 들을 수 있는 최종적인 답은 1,100명의 노동자에 대한 정리해고 통보였다. 이에 맞서 노조는 해고통보인 우편물수령 거부와 집단소각을 결의하고 공권력의 투입이라는 위협에 직면한 채 옥쇄파업으로 결사항전을 천명하여 강고한 투쟁을 벌여나갔다. 이른바 신자유주의 친자본 기조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등에 업은 사측은 공장점거파업은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끊임없이 노동자들에게 온갖 유형별 해악을 자행했다. 조합원들로 하여 임직원 결의대회에 강제 참석, 파업불참자들을 압박하고 초인적인 힘으로 싸우고 있는 굴뚝 고공농성자들에게 식수와 음식의 반입을 가로막았으며 노-노간 반목을 부추겨 어제의 동료를 오늘의 적으로 돌려놓았다. 의료진의 출입을 막아서는가 하면 바깥의 연대와 지지를 차단시키려 정당한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마구잡이로 연행해 갔다.

철의 규율로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다.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쌍용자동차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혹자들이 말하는 그 시작은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었을지언정 옥쇄파업이라는 가장 선진적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행사하게 됨에 따라 오직 노동의 착취로 그 존재와 명분을 이어가는 자본의 본질을 똑바로 인식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자본의, 공생이니 상생이니 하여 보다 많은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최후의 땀과 피한 방울까지 모조리 짜내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한 부도덕하고도 반인간적인 논리에 대적하여 흔들림 없이 가열차게 투쟁을 이어갔다. 그들은 투쟁기간 내내 파업전선을 공고히 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체적 노동계급의식을 고취시켰으며 600여명의 거대인원이 일사분란하게 그 무엇으로도 손상될 수 없는 고귀한 동지애로 똘똘뭉쳐 사측의 탄압과 갖은 추악한 분열책동에 맞서 투쟁전선을 지켰다. 그들에게는 물러서는 것은 곧 죽음이었던 것이다. 이미 지난 시기에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과정에서 30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시켰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응집된 공장을 깐 호박씨 털어넣듯 통째로 먹어 삼킬 속셈으로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며 몸 바쳐 일 해온 일터에서 무더기 해고를 단행하였던 것은 그 어떤 논거로도 설

득될 수 없는 파렴치함이고 그것은 투쟁을 통해서만 깨쳐버리고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을 노동자들은 알아낸 것이다. 자본정권과 사측은 파업은 곧 손실이라는 비열한 유언비어를 대중들에게 유포하여 파업 전 기간에 걸쳐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오해 속으로 파업노동자들을 밀어넣었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을 폄훼하였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워냄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그들스스로 지켜내고 있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전략부재가 가져온 것

옥쇄파업이 강고한 만큼 바깥에서도 연일 연대하는 개인 단체 정치인들이 안의 투쟁의 동력에 힘입어 노동자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극한 관심으로 경찰과 구사대라는 바리케이드에 막혀 그저 정문 앞을 서성거렸을 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우리들은 공장점거파업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리라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뒤늦게야 참으로 가깝고도 먼 거리에 있는 공장점거파업 중인 노동자들의 투쟁에 어떤 방식으로든 힘을 보태려고 했으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아서 바둥거렸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유일한 보루가 되어야 했던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지도부는 여름날 고인 물처럼 미지근하고 어정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파업노동자들의 지렛대가 되어주지 못하였다. 특히 금속노조의 지도부는 그 중심이 비켜나서 '내밥그릇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밥그릇 지키는데 연대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투쟁 현장과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 방금 목숨 건 파업전선에서 피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투쟁의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는 등 옥쇄파업의 정당성을 여론화하는 작업을 거론하면서 '여론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는 등 뒷북을 쳐댔다. 충돌의 기운을 더욱 높아지자 정갑득위원장은 중개인 노릇이나 하겠다는 듯이 그 존재자체가 불법투성이인 <경찰책임자와의 대화>를 자청했으며 뒤늦게 <경찰병력 투입 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하겠다고 하여 그야말로 사후약방문의 형색으로 민주노총 지도부는 투쟁역량을 스스로 한정지우고 있었다. 노동자들이 협상이 시작된 뒤에야 정문 앞에 플랭카드를 내걸고 텐트를 치며 자리보전을 했지만 그것이 되레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의 전략부재가 가져오는 것은 결국 노동운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노동자개개인을 개량화하고 반동화하여 그것이 자본을 이롭게 하는 첩경인 것을 그들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 추악할 수가 없다.

연일 쌍용자동차는 하루 수십억의 돈으로 불러들인 용역들이 노조를 자극했다. 쇠파이프, 헬멧, 소화기, 그물망 등으로 무장한 용역들 3,000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구사대와 경찰은 공장 담의 안과 밖을 장악하고서 파업노동자들은 위협했다. 경찰은 쌍용차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집회불허장소로 딱지를 붙여놓고 일반인들의 진입을 막아 그야말로 구사대와 경찰의 난립으로 무법천지로 변화시켰다. 거리행진을 물리력으로 막았고 가대위 소속 여성들을 고착하여 폭력적인 연행을 시도하고 행진대열의 머리위로 최루가스와 최루액을 뿌리고 _발암물질이 함유된_ 옥상과 굴뚝 농성자에게 최루액주머니를 통째로 떨어뜨리는가 하면 급기야 티브이만화영화에서나 보는 순간전력이 5만 볼트가 되는, 맞는 부위에 따라 치명적일수도 있는 테이저건을 쏘아 댔다. 국가권력이 그들의 첨병인 경찰을 동원하여 노동자들을 상대하여 더러운 전쟁을 벌인 것이다. 그 전쟁 속에는 아예 인권은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만큼의 가치도 지켜지지 않았다.

일찌감치 평택공장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 해고압박 등에 시달렸고 그 와중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노동자 두 명이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고 연이어 희망-퇴직자 두 명은 자살을 택했다. 자본이 노동자들에게 보기 좋게 제시하는 희망이 단 한 번도 희망이 되어본 적이 없는것 그것은 해고의 또 다른 날조된 이름일 뿐이라는 것을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희망퇴직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또한 모르지 않았다. 더욱 참담하게는 어리디 어린 두 아이를 품어 기르던 어미였던 스물아홉의 노조간부 부인이 온 몸 던져 싸우던 성실한 남편과 사랑스럽게 빛나던 두 아이의 눈빛조차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죽음을 택했다. 웬일인지 나는 몇날 며칠 동안 사람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자본은 산자와 죽은 자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진 노동자들끼리 반목과 갈등을 부추겼다. 자본이 그러

하면 그러할수록 파업노동자들은 그들이 타도해야 할 적은 산자가 아니라 자본이라는 것을 한 층 더한 각성으로 무장해나갔다. 그러자 불안의 증세는 바깥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에게 나타나고 있었다. 산자들은 죽은 자들의 꺾이지 않는 기세에 불안해졌고 그 불안이 산자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고 광포한 폭력성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자본권력의 하수인 이명박 정권

용산참사에서 보듯이 공권력의 개입은 곧 이명박 정권의 대노동자탄압의 가장 적나라한 형태이며 이것은 이명박 정권이 친히 자본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내는 것이다

애초에 쌍용자동차는 노무현정권이 산업은행을 통해 상하이자동차에 2700억 원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특혜와 함께 매각한 후 상하이차는 약속한 투자는 한 푼도 하지 않은 채 외려 핵심기술을 빼돌린 후 엄청난 부채를 남기고 빠져나갔던 전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업이고 보면 자본권력이 지속되는 한 이명박 정권은 자본권력의 수장이자 친히 하수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자본권력이 친위대가 사측을 옹호하고 나아가 자기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서로 공생공존을 도모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자본의 폭압적인 착취가 계속되는 한 산자도 산자가 아닐 것이요 죽은 자 또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할 투쟁전선에 나서지 않는 한 이상 결코 산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는 한 치의 의심 없이 노동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그 토대를 발판삼아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아래서는 노동자는 버림받는 일 뿐이다.

소박하거나 강경한 연대

자정이 훨씬 넘어서 경찰헬기들이 밤의 침묵을 깨며 따발총 같은 굉음을 내며 공장옥상으로 벽으로 탐조등을 비추며 선회하고 있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각 단위별 개인별로 쌍용자동차 정문 앞 인도에 몸을 누이거나 삼사명씩 무리지어 모여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한 무리의 청년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팔을 높이 치켜들어 결의의 함성을 내지르고 있었다. 가슴이 찡해지는 장면이었다. 노동자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밤낮으로 많게는 삼사백 명씩 또 적게는 오육십 명씩 우리가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었고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은 단식 일주일을 넘기며 창백하고도 상기된 얼굴로 의연함을 유지하여 지나치는 이들이 한 번씩 격려의 인사를 나누었고 연일 많은 시민사회단체성원들이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촛불로, 함성으로, 때로 깨진 돌멩이로, 눈물로 또 무자비한 경찰의 폭력 앞에 맞선 단단한 결의로 파업노동자들과 함께하고자 하였다.

무개념한 인간의 전형 이영희 노동부 장관

"노사분규는 집안문제 자체 해결해야" "하루아침에 1000명의 노동자가 잘려나가고 있는데 900명은 문제가 아니다" "노사분규는 극단적으로 보면 집안문제"라며 "외부 사람이 집안사정을 잘 알 수 없는 만큼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결코 심사숙고라고 모르는 노동부장관이라는 자가 야비한 혀를 내둘러 하는 말이다.

그는 "기업에 법적으로 보장된 경영권이 있는데 노조의 해고 불가입장은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며 "법이 정한 경영권을 단체협약에서 침해하면 안된다"면서 "기업이 어렵고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 도산이나 경영위기를 막기 위해 공정한 기준과 노동부 신고, 노조와의 협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노조가) 절대 구조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경직된 주장을 가지고 약 2,700억 정도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회사가 회생보다는 파산상태로 가게 하는 이 상황을 개탄한다" "근로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를 생각할 마음도 가져야 하는 데 저렇게 회사가 파산하든, 어떻게 하든 끝까지 가는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쌍용자동차에 대한 어떤 해법도 기피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독설을 쏟아냈다. 이것이 대한민국 각료들의 현주소이다.

뼛속까지 아픈 결사항전

이미 정문 앞 연대투쟁단위들을 몰아낸 후 노동자들을 철저히 고립시켜놓은 채 8월 4일 오전부터 경찰, 사측, 용

역이 합세해 지게차 사다리차소방헬기 최루투하용 헬기 등을 동원해 공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총공격을 개시하자 노동자들의 결사항전은 계속되었다. 사실상 특공대의 투입이 있었고 그 특공대가 차체자제 옥상을 점거한 후 소방헬기로 물을 쏟아 붓고, 또 다른 헬기는 최루액을 떨어뜨리며 사측, 용역 전투경찰 3개 중대 1,000여명이 전방위가 공격을 펼쳤으나 고군분투하는 파업노동자들의 저항은 완고했다. 경찰들의 진압이 눈앞에 다가오자 쌍용차 협력업체 조기파산 신청키로 합의하여 노동자들을 더욱 압박하는 가운데 이제 특공대는 공장진입을 서두르며 노동자들을 마구잡이로 폭력연행하기에 이르렀다. 정문 밖에선 구사대가 쇠파이프 등을 들고 천막을 철거하며 폭력행사에 여념이 없었다. 경찰의 진압을 피하여 저항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등 극심한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 용역 합동작전으로 5일 정오가 되기 전에 쌍용자동차 도장2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을 장악되었고 노동자들은 완전히 도장2공장에 고립된 채 6일 아침을 맞았다.

막장 폭력으로 끝맺음한 비루한 정권

특공대투입과 신공격무기로 무장한 경찰은 노동자들을 상대하여 살인적 무기를 마구 휘둘렀고 진압과정에서 집단구타를 당해 그들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수술과 입원이 필요한 부상 노동자가 속출하고 실제로 당장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 의사의 소견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또 어떤 노동자는 조사중 실신하여 응급차에 실려 나가기도 했다. 인근경찰서로 무차별 폭력 연행된 노동자들은 가족의 면회가 금지된 채 77일간의 옥쇄파업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몸으로 대여섯 시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조사를 받는—더할 수 없는 야만이 백주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의 자발적 소견서를 가지고 와 경찰에게 내밀었으나 접견은 조사 후에나 가능하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었다. 여름 날 눈의 상처에서 진물이 흘러나오고 팔을 약식깁스로 감은 노동자, 머리를 대충 꿰맨 후 경찰에게 구인되어 온 노동자들의 인권은 경찰서 한 복판에서 철저히 유린되고 있었다.

승리의 발판으로 삼아서!

2일 노사교섭 결렬된 후 4일 만에 노사 교섭이 평택공장 내 평화구역에서 12시경 시작됐다. 점거농성 77일째 노조 측이 결국 양보하여 노사는 '무급휴직 48%, 정리해고 52%'에 합의하여 애초 정리해고 대상자 2646명 중 2200여 명의 정리해고가 확정되었다. .

한상균 지부장은 "마지막까지 최소한 직접 라인에 정리해고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히고서 "정리해고 막지 못해 미안하다. 쌍용차 투쟁으로 정부의 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지들 죄송합니다"는 말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싸움이 영웅적 투쟁이었다고 하고 어떤사람들은 진 싸움이라고 하고…….

영웅적 투쟁은 파업노동자들의 것이었지만 그 투쟁을 이긴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단연코 우리의 몫이다. 누가 더 투쟁적이었으며 누가 더 개량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는지 준엄한 비판 속에 다시 단결해나가야 하는 일 – 그 판단은 앞으로의 시간속에서 찾아나가야 한다.

도처에 자본의 악랄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존엄성이 자본에 의해 도륙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묻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늘 푸른 사철나무도 묵은 잎을 떨구어야 할 때가 있지 않겠는지! 이제 자본주의의 종주국을 자처하여 친히 무법자이기를 자처하던 미국이 대공황에 직면하여 사실상 그 세력을 잃고 자본을 우상화하던 자본교신자들은 한치 앞도 전망할 수 없는 암흑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쌍용자동차 파업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었다. 자본에 맞서려면 노동자의 단결해야 한다는 것 혁명적 투쟁전선이 사회주의를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것이 곧 그것이 곧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노동계급의 해방과 더불어 오게 될 통일된 세상!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보다 가까운 시간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재미동포 인권을 짓밟은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은 재미동포 정영철씨를 포함한 한국내 모든 진보인사들을 전원 석방할 것을 이명박 정권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2008년 12월 5일 '국가정보원'은 재미동포 정영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하였다. 그는 켄터키주 플로렌스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이며,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으로 활동해왔다.

'국정원'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였다는 '죄'를 정영철 씨에게 뒤집어씌웠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뒤로, 아예 이성을 잃고 날뛰며 정치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국정원'의 가증스런 조작행위는 상상을 초월한다.

뉴욕에 본부를 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들이 유엔주재 북측대표부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거나 대표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것은 일상사인 데도, 정영철 씨가 2004년 여름 뉴욕에서 개최된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임원선거를 마친 뒤 임원들 20여 명과 함께 유엔주재 북측대표부에서 열린 축하모임에 참석한 것, 2006년 봄 유엔주재 북측대표부 대사, 참사와 대표부 인근식당에서 식사한 것, 2007년 5월 초순 유엔주재 북측대표부 대사와 참사를 만나 식사한 것을 모조리 '반국가단체 성원들과 회합한 죄'로 조작하였다.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원들만 아니라 재미동포 이산가족들, 각 계층 재미동포들이 북측의 해외동포원호위원회로부터 초청을 받고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너무 일상적인 일이어서 이제는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을 정도인데도, 정영철 씨가 2005년 11월 26일 해외동포원호위원회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잠시 내린 것을 '국내에 잠입한 죄'로 조작하고, 평양을 방문한 것을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지배하는 지역으로 탈출한 죄'로 조작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다. 정영철 씨가 2006년 2월 3일 평양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보내는 후원금 3천 달러를 마련하지 못하여 평양을 방문하지 못하고 중국 심양까지 갔다가 미국으로 되돌아온 것을 '탈출미수죄'로 조작하고, 2006년 5월 18일 방북사증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평양에 가지 못한 것을 '탈출예비음모죄'로 조작하였다.

재미동포들은 물론 미국인들 가운데 유엔주재 북측대표부 관계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데도, 정영철 씨가 2005년 12월 8일 켄터키주 플로렌스의 자택에서 유엔주재 북측대표부 참사로부터 걸려온 안부전화를 받은 것을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한 죄'로 조작하였다.

정영철 씨가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한인종업원들에게 북측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평양방문 체험담 등을 이야기한 것을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선전한 죄'로 조작하였고,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 북측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북측 국기를 걸어놓은 것이나, 북측에서 출판한 책을 자신의 책장에 보관해온 것을 '이적표현물 취득죄'로 조작하였고, 남측의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산하 한국민권연구소에서 발행한 계간지 시대평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적표현물 소지죄'로 조작하였다.

또한 정영철 씨와 함께 방북하였던 재미동포전국연

합회 회원 김원유 씨를 "노동당에 입당한 뒤에 국내에 출입하면서 북한 지령에 따라 최신용 군용 VHF 무전기 구매를 기도한 간첩혐의자"로 조작하였다.

'국정원'의 조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그 단체의 지도급 인사들과 만난 것을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게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및 북측의 '지령'을 전달하였다는 '불순연계활동' 혐의까지 두었다. 악질적인 조작행위는 더 이상 열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조작해도 일반상식과 어느 정도 맞아야 전후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데, '국정원'의 조작행위는 길을 지나가는 소마저 어처구니가 없어 비웃을 만큼 조잡의 극치이다.

'국정원'의 조작행위가 조잡의 극치를 이루는 것처럼, '국정원'이 매달려있는 '국가보안법' 역시 반북광란의 극치를 보여주는 만고의 악법이다. 광란적인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날뛰는 조작전문집단인 '국정원'을 앞세워 해내외 인사들을 탄압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국회에서 악법제정을 강행하여 민주주의를 교살하며, 민생경제를 파탄시켜 국민 대중을 도탄에 빠뜨릴 뿐 아니라,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면서 남북관계마저 끊어버린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만인이 퇴진을 요구하는 대상이 아닌가!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을 단죄, 규탄한다.

정영철 씨를 즉각 석방하여 미국에 있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구속된 수많은 국내 진보단체 관계자들을 즉각 전원 석방하라!

또한 만고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정보원'을 해체하라!

2009년 1월 6일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중앙위원회

지난 09년 7월 24일 서울 구치소로 정영철씨를 면회하였습니다.

정영철씨는 2008년 12월 5일 구속된 재미교포로 사건은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1심에서 5년구형에 선고 1년 6월을 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에 있습니다.

면회를 온이가 누구인지 몰라 처음엔 누군가 싶은 얼굴을 하고 계시더니 양심수 후원회에서 왔다고 하자 밝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습니다. 선한 인상에 반짝이는 눈이 굳은 심지를 보여주는 듯했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짧은 면회시간 10분을 보냈습니다.

작년 10월 9일 출국정지가 떨어졌고 그후로 두달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10월 5일 전격구속되면서 국정원에서 2주 검찰에서 1주간 조사를 받았으며 가족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 관계로 면회는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23살된 아들이 대학교 건축과에 재학중이고 가족들 모두 자신을 너무 잘알고 믿어주는 관계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자신은 15년전 미국에 갔는데 미국땅에 내렸을때 단돈 1400원 뿐이었을 정도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돈은 쓰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고 그래서 영치금도 필요치 않아 여러 경로로 들어온 영치금은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 쓰라고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후원회에서 주는 영치금도 그래서 필요치 않다고 거부하는 것이라 합니다. 잡지 '민족21'도 구치소에 요구해 보고 있어서 보내지 말아 달라고 할 정도 입니다. (말은 편하게 하시지만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사이 시간이 흘러가고 면회시간이 끝나 꺼진 마이크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막혀진 아크릴 판사이로 입모양으로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후원회 모든 회원들에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안부를 전해달라 하시며 자신은 걱정할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다른 분들을 찾아봐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전할분을 위해 주소와 수번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135번 정영철

장민호 님의 편지

동지들 그동안 모두 건강히 지냈는지요?
그리고 문차웅 동지 및 가족들께도 감사와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이정훈 동지, 이진강 동지, 출소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 여러 동지들의 말대로 세상이 험난하니 감옥의 안팎이 따로 없는듯하여 축하와 함께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무도한 정권하에서 갖은 악법에 결박된 이 나라를 석방시키는 것 외에 선택에 여지가 없음이 분명합니다.
우선 간략히 저희 누님의 미 영사 면담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먼저 이일과 관련하여 많은 동지들 및 가족들에게 수고와 번거로움을 끼쳐드린데 대하여 저의 송구스러운 마음,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애시 당초 이 사안이 정치적 타당성이나 실효성 등에 대하여 저 또한 회의적이었으나 오바마 정부의 황당한 대 한반도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는 심정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누님께선 어머님과 함께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경, 미 대사관을 방문하여 2~3명의 영사들 및 통역자와 기타직원 등 대략 5~6명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가량의 면담을 하였으며 제가 작성한 영문 편지와 이정훈 동지가 작성한 요구사항들을 전달하였습니다.
7.9에 대전으로 접견오신 누님의 전언에 의하면 누님께선 달리 할 말이 없어 '왜 미국 정부가 이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과 저를 차별대우 하는가?' 그리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이 왜 이 나라의 국보법 문제에 침묵하는가?' 얘기만 반복하였다고 합니다. 영사들의 답변은 (당연히) 편지와 요구사항들을 본국의 당국에 전달하겠다는 것 등 외교 실무자들의 형식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미 영사가 대략 분기에 한 번 씩 전국의 교도소를 방문하여 미국인들을 접견하는 데에 저도 참가할 것을 누님에게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국정원과 서울구치소에서 몇 번 본 이후 전혀 도움 되는 것이 없어 여태껏 접견을 거절하여 왔습니다. 박 동지 말대로 면피성 대응이지요.
정작 쓰고 있자니 저도 누님에게 들은 얘기가 이것 밖에 없군요. 어쨌든 이 문제를 제기한 손 동지, 그리고 순발력을 발휘하여 요구사항들을 작성하여 전달한 이 동지와 구 동지.. 의견수렴과 격려를 위하여 먼 길 발걸음을 주신 김정라 동지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의 누님에 대한 조용한 배려에도 감사드립니다.)
영문편지를 쓰는 동안 저는 80년대 중반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미국의 대 중남미 정책을 비판하는 집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산디니스타 미주 본부가 주도한 이 집회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밥 우드워드 기자가 연사로 나서서 한 얘기 중 (소위 인권대통령이라고 알려진) 지미 카터를 맹비난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부분은 지미카터가 이르기를 "니카라구아의 독재자 소모사는 개새끼지만 미국의 개새끼(He is a son of bitch but a son of bitch of the U.S)"라고 일갈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개새끼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오바마가 과연 저 지미카터보다 나은 구석이 있는지 회의적입니다. 올 초에 문동지가 보내준 Obama plan 이라는 것을 읽을 때에도 느꼈던 바이지만 오바마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미국의 과도기 정권입니다. 앞으로 민족의 역량이 미국의 이중성뿐만 아니라 보다 중대한 정세적 본질 즉 임박한 필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우리의 입장에서 본 '전반적 위기' 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동지들 모두 잘 알고 있듯, 오바마가 대한반도 정책의 전환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그이 피부색이나 언론이 요란하게 떠들어 대는 그의 정책적 자질이 아니라 민족 자주 역량에 추도된 것으로 될 뿐입니다. 지난 편지에서 언급하였던 저의 이송문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으로는 박동지의 말대로 저들의 면피성 조치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누님의 면담일 다음날(7.9)에 외국인 담당 직원이 찾아와 미 대사관에서 보내온 팩스를 보여주며 서명하라고 합니다. 읽어보니 그 동안 제가 미 영사의 교도소 방문 접견을 거절한 것이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 저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명을 거절하였으며 앞으로 찾아오면 접견에 임하여 누님을 통하여 전달된 내용들을 재차 반복하거나 외국인 처우 관련 민원 등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좀 더 생각하고 연구해 보아야 하는데 미

국 시민권자들에 대한 배타적 처우개선 요구보다는 '유엔 피구금자 협약'이나 '유럽 형사규약' 그리고 'Amnesty Int.'의 국제 재소자 관련규약들을 좀 더 공부해 보고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인권외교와 관련하여 이중성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는 설령 이송이 가능하더라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 입장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니 생략하고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최소한) 4대종가의 장남입니다. 그리고 큰 불효를 하게 되었지만 사회생활의 첫 발을 딛을 때부터 부모님을 부양하고 모셔왔습니다. 출소하면 동지들이 그리운 가족들에게 그러하듯 저 또한 노모를 모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문편지 공개와 관련하여, 애초에 이 편지는 탄원서의 형식을 취하되 후원회 소식지 등 진보 매체에 공개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니 제가 읽어보아도 내용과 말투가 어정쩡한 데가 많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이중성 폭로하는 투쟁에 보탬이 된다면 한겨레 등의 일간지 게제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문편지의 직역본을 첨부하니 동지들의 의견 바랍니다. 박동지가 알고 있는 분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깝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몇 차례 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는 손○춘 씨에게 보낼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의견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동지들과 가족들의 관심, 고동의 노력들에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 2009. 7. 14 장 민 호 드림

* 이 편지는 대전교도소의 장민호동지가 이른바 일심회 가족대책위 문치웅님(양심수후원회회원)에게 보내온 편지이며 오바마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는 본인의 요청으로 소식지에 실습니다. 위 편지는 아래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함께 게재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귀하

저는 미국의 한 시민이며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는 장 마이클입니다. 미국의 새 정부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보기술 분야의 종사자로써 주로 한국과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관련 전문 분야에 종사하여 왔습니다. 저는 또한 충실한 납세자였으며 실리콘 밸리 지역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거주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귀화한 미국시민으로써 다민족, 다인종국가인 미국의 여느 사람들처럼 제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의 평화와 민주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정당한 관심과 관련된 일부 정치활동으로 인하여 저는 지난 2006년 10월 24일, 한국의 대표적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당원들을 포함한 5명의 동료들과 함께 구속되었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혐의는 친북행위를 하여 한국의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사당국은 냉소적 비난의 대상이 된 바, 법을 어긴 것은 저와 동료들이 아니라 수사당국 자신들이었으며 이들은 비인간적인 협박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적법한 수사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 사실상의 정치선전을 단행함으로써 형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난폭하게 유린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미국이 결정적 당사자로써 참여하였던 전쟁에 의하여 분단되었던 한 국가에서 지난 수십년에 걸쳐 반복되어온 '빨갱이 마녀사냥'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저와 동료들은 이른바 '마지막 냉전의 고도'에서 벌어진 정치적 억압과 인권유린의 전형적인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논지의 핵심은 이러한 악마적 정치행위를 가능케 한 국가보안법의 현존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악법을 집행하는 수사당국자들이란 '국가보안법이라는 매트릭스'에 연결된 '허수아비 스미스 요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매트릭스가 의심의 여지없이 지난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미국에 의하여 설계, 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본디 지난 1932년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민중의 해방투쟁을 억압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나쁜 것은 미국이 이 땅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던 전쟁 시기에 더욱 퇴행적으로 개악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정치범들을 조작하고 양산하여 온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언론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난폭한 파괴자로써 지난수십 년 동안 국제인권사회에서 끈임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을 뿐 아니라 미국 헌법정신과도 모순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귀하가 '국제 언론기념일' 행사에서 현재 이란과 북한에 억류중인 미 시민들의 석방을 촉구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에서 귀하가 대한민국 당국에게 저와 동료들의 석방을 촉구할 것을 주장하는 바이며 식민지 시대의 가장 수치스러운 세계적 유산이며 냉전시대의 잔여물인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한 촉구할 것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 법에 의하여 7년을 선고받고복역 중이며, 당시 사립 교육기관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손정목씨는 4년, 건설관련 회사의 임원이었던 박경식씨는 3년 6개월, 민주노동당의 부 사무초장이었던 최기영씨는 3년 6개월, 민주노동당의 중앙위원이었던 이정훈씨는 3년, 그리고 정보기술회사의 간부로 재직 중이던 이진강씨는 3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이 외에도 수많은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이 대한민국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대한민국 당국의 '빨갱이 마녀사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어둠에 파묻고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호하게 주장하는 바, 신정부 외교정책의 진정한 변화는 동북아 동맹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비인간적이고 진부한 마녀사냥들을 종식시키고 사상의 자유와 인권보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촉구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문명사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전 근대적 마녀사냥의 야만들을 종식시키려는 그 어떤 노력도 경주하지 않은 채 미국이 표방하는 이 지역에서의 소위 인권외교란 도덕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정치공세에 불과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미국의 새 정부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구제(Bail out)하여야 하며 그것들을 무시하고 방기한 데에 기초한, '정당하지못한 동맹관계'를 구제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이상의 주장들에 대한 귀하의 주의와 관심은 지난 10년 동안 전임자가 잃어버렸던 미국의 정치적 지도력과 도덕적 일관성 그리고 미국적 가치의 복원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제 1년을 남겨둔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그너의 오페라 파르지팔 중의 한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 합니다.
'오직 당신을 찌른 그 창만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끝까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2009. 6 장마이클 씀

양심수 후원회 동지들께 보냅니다.
여름입니다. 돌아가는 나라꼴이 더욱 덥게 느껴집니다.
용산에서도 평택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집니다.
검찰청장 내정자는 자들은 하나같이 그 모양입니다.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스스로 법을 어기고 국민들에게는 법전을 들이댑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생각해봅니다. 어쩌면 미치지 않는 것이 참 용하다 싶습니다. 정치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백성들과 싸우는 정치가 가장 안좋은 정치라고 했습니다. 바로이명박 정권이 최악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던지는 말 한마디마다 내놓은 정책마다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가슴을 멍들게 합니다. 1980년도에 박정만이라는 시인은 영문도 모르고 안기부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나와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만큼이나 망가져서 나왔다' 고 했습니다.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만신창이가 된 몸 만큼이나 대한민국은 망가져있다는 것인데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시기로 돌아가고 있으니 지금의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지않나 생각해봅니다.
임미영사무국장님께서 평택쌍용자동차공장에 갔다가 용역깡패놈들에게 잡혀서 48시간 감금되었다가 나

왔다고 들었습니다. 용산에서도 그러더니 평택에서도 용역깡패와 경찰이 합동으로 지랄들입니다. 살집도 없는 임미영사무국장님이 험한 꼴을 당했다니 맘이 아픕니다. 민가협어머님들과 양심수후원회 분들이 이렇게 바빠진다는 것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중들이 그냥 당하고 있는 것도아니고, 대응은 더욱치열해지고 양심과 정의가 더욱 분출하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민중의 승리로 귀결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오헌명예회장님께서는 평택에 다녀오시면서 면회를 와 주셨습니다. 김호현회장님은 면회를 두 번이나 다녀가셨고 재판에도 와주셨습니다. 혜순이 길자가 면회와서 힘을 듬뿍 전해주고 갔습니다. 모성용부회장님은 분주하게 다니시면서도 다른양심수들 면회하시고도 늘 편지를 넣어주고 가십니다. 박희성선생님께서는 공판 때도 오셔서 지켜봐주시고 힘을 주셨는데 영치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출소하면 6.15산악회 산행때 마다 다니면서 선생님의 삶과 흔적과 뜨거운 숨길을 많이 느끼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법정에서 투쟁을 잘하고 이후에도 힘찬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남은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고 반가운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양심수후원회 모든 회원 가족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2009. 8. 9 서울구치소에서 이경원이 올립니다.

최기영 님의 편지

한 남자의 굵은 눈물을 보았습니다.
이별을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자산의 처지를 아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탓에 애써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화장실로 가는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과 애환을 아파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 나는 잠시 혼란스럽고 의외였답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누구보다도 강한 강철의 심장을 가졌고 감히 언급하기 힘든 높은 사상이론을 가졌습니다 도한 사물을파악하는 깊이 있는 눈과 인생전반을 관통하는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도처음엔 그가 외계인인줄 알았답니다. 기업체 사장이라고 하니 배는 불룩튀어나왔을 것이고 IT 업계의 386대표자라니까 인텔리 국물이 좔좔 흐를테고 미국국적이라니 우리말도 잘 못하는 강남 유학쟁이로 알았습니다 .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제 심장에 들어와서 '조국통일기' 하나를 콱 꽂았습니다.
더욱 놀란것은 그가 무척이나 소탈해서 동네수퍼아저씨같고 고등학교 동창마냥 우리랑 똑 같으며 무척이나 사려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그는가슴이 너무나 따뜻한 사람입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로운 도덕윤리를 체현한 그는 노동자이자 민중입니다.
이번에 그가 아파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확고한 신뢰이자 새 세상의 주인들에 대한 존엄있는 태도입니다. 분노와 격정으로 충혈된 눈을 가진 이 사내는 내일 모래면 50줄이 됩니다. 국정원에서 강제이혼을 당하고 처자식이 하루 아침에 강제추방되었고 단 한 번의 면회조차 국정원의 24시간 감시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증거자료랍시고 미국 CIA의 조서가 첨부되어 미국에 있는 처자식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디아스포라' 이자 '경계인' 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단 한번의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이자 조국통일의 신념으로 생을 가치있게 사는 참된 사람 , 장민호입니다 선배님 사랑합니다. 99세까지 사세요 !

– 2009. 8. 13 대전 최기영

진보의 길로 향한 실천의 발걸음이 절실한 때이다.

노혁 | 후원회회원

지난 5월 7일 오전 청주에 있는 후배로부터 '윤주형, 장민경, 오순완 연행. 통일청년회 압수수색'이란 문자가 날라왔다. 놀란 가슴에 연락을 취해 보니 새벽 6시 자택 압수수색과 함께 연행되었으며, 충북지역 통일단체인 통일청년회와 615 충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 알고 보니 서울에서도 범민련 이규재 의장님,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도 연행되었다고 한다. MB정권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비교적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일상에 빠져 바쁘다는 핑계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던 지난 시간에 대한 반성으로 무척 기분이 우울해졌다.

이들 3명은 충북지역에서 범민련 활동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와 통일청년회에 대한 이적단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정원과 보안수사대의 조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로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로 주로 증인심문을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는 건강한 일꾼들을 이적단체와 조직사건으로 엮어 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MB정권의 수작으로 보인다.

3명 모두 저와는 학생운동을 함께 하던 인연으로 이후 통일청년회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장민경은 청주대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거쳐 현재는 615 충북본부 집행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누구보다도 좋은 품성으로 선후배 사이에 여전히 인기가 좋다.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매일 플랭카드 옆에서 페인트통을 들고 선전문구를 고민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저의 아내인 도은주 양도 그에게 선전 일을 배웠으니 아내에게는 스승(?)이 되는 셈이다.

윤주형은 충북대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거쳐 현재는 전농 충북도연맹 조직국장으로 활동 중이다. 인물이 좋아 학생 때는 인기 꽤나 있었다. 저와는 여러 학교로 하방사업을 다니며 술을 함께 하던 좋은 친구였다. 가족들이 면회하기로 되어 있어 아쉽게도 이번에는 만나지 못했다.

오순완은 충북대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거쳐 현재는 615 충북본부 사무처장으로 활동 중이다. 문화일꾼 출신으로 각종 집회에서 춤(?)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고나 할까..... 무척 여린 심성을 가져 가끔 눈물을 흘리면서도 맡은 바를 끝까지 책임지는 강단 있는 일꾼이다.

지난 7월 25일 양심수후원회 모성룡 부회장님과 함께 청주 미평교도소로 장민경, 오순완 2명의 통일일꾼을 면회하였다. 15년전에는 미평교도소 주변이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시골동네였는데, 지금은 청주 외곽지

역의 개발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듯 했다. 예전에 임수경 통일일꾼이 이곳에 수감 중이어서 충북지역은 전국집회 전에 매번 면회투쟁을 진행하고 늦게 합류하여 역시 충청도는 굼뜨다는 오해를 받곤 했던 기억이 난다.

2명의 통일일꾼들은 이제는 적응이 되었는지 혈색도 좋고 건강해 보였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범민련 상황과 충북지역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역에선 대책위가 꾸려져서 잘 대응하고 있으며, 검찰에선 막상 구속을 시켰는데 죄(?)를 입증할 증거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별로 한 게 없는데 이 곳에 들어와 있어 약간은 부끄럽다는 그들을 보면서 속으로 미안한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에 내 얼굴이 빨개졌다.

양심수후원회의 후원금과 소식지를 잘 받아보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건강하라는 당부와 나중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면회를 마쳤다.

이후 평택으로 떠난 모성룡 부회장님으로부터 문자가 날라왔다. '임미영 사무국장 경찰에 연행' 순간 미쳐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다행히도 지금은 양심수후원회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

북과 미국은 클린턴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대화의 물꼬를 터나가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MB정권은 남북대화의 창구를 모두 막아 놓고서 남측의 통일인사들을 탄압하며 여전히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말로만 민생문제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날이 갈수록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졌는데 부자들에겐 각종 혜택을 주어 사회갈등을 심화시키고 경제, 문화, 역사, 교육, 언론, 환경문제 등 온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놈의 정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나간 민중의 역사를 교훈 삼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진보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의 발걸음이 절실한 때이다.

윤주형 : 361-600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00호 536번

장민경 : 361-600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5호 8번

오순완 : 361-600 충북 청주시 서청주우체국 사서함 145호 9번

알립니다.

■ 채규화회원이 만남의집 선생님들을 위해 침대형 허리 안마기를 기증하였습니다.

■ 범민련후원회에서 만남의집에 들러 범민련후원주점에 보여준 성의에 감사하였습니다.

■ 박중기 지도위원님께서 옥중생활중인 동지들에게 전하라며 책 수십권을 기증하셨습니다.

범민련의 자주통일운동은 국가보안법으로 재단될 수 없다.

권오헌 |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

아침부터 장맛비가 세차게 내렸다. 무겁게 내려앉은 저기압 날씨였지만 서초동 424호 법정은 발디딜 틈도 없게 방청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초만원이다 못해 입정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법정 밖에서 성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왜 대법정이나 중법정으로 하지 않고 이 좁은 데로 잡았느냐는 불만이었다. 법정정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성토를 진정 시키느라 진땀을 빼고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이어졌다.

이날(7월 17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윤경 부장판사)심리로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첫 공판이 열리게 되었다. 지난 5월 7일 국정원과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수백 명 수사관으로 범민련 남측본부사무실과 지역연합, 그리고 지방통일운동단체사무실과 통일운동일꾼들 집 등 25곳을 압수수색하고 이규재의장등 6명을 국정원등으로 강제연행한지 70일 만에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오늘 법정에 세워진 세분은 연행되는 날부터 국가보안법에 의한 통일운동탄압에 항의하여 국정원과 검찰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범민련탄압은 사회적 공분으로 이어졌었다. 연행 당일부터 국정원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 기자회견을 연 것을 비롯하여 구속영장 기각촉구 구속적부심에 석방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통일인사 석방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했었다. 그리고 5월 12일에는 80여 사회단체가 함께하여 <범민련 탄압대응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여명에 이르는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또한 공대위 대표들의 국정원 앞 등 1인시위도 이어졌다. 오늘도 첫 공판에 앞서 11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 범민련탄압 공대위와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공동으로 '범민련 구속인사 1차 공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련탄압중단과 국가보안법폐지 통일인사석방을 촉구했다.

방청석에는 오늘 재판을 받게 된 이규재의장의 형님이신 이천재선생님과 멀리 대전에서 오신 최은아 선전위원장 부모님들, 그 외 이경원 사무처장의 부인 김부일님과 아들은 의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종린 범남본 명예의장님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전국에서 온 통일원로 선생님들과 자주통일을 염원한 일로 수십 년 옥고를 치루어야 했던 통일광장 선생님들, 자식을 감옥에 보내면서도 민주화운동에 앞장서 오고 계신 민가협 어머님들,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을 비롯한 사회각계 부문단체 성원 등 100여명이 법정안팎에서 개정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인석에는 심재환, 조영선, 장경욱변호사 얼굴이 보였다. 재판장과 배석판사가 입정하고 검찰과 변호인을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규재의장등 세분이 푸른 수의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입정했

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의 생각으로는 이들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투사였기 때문이다.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을 받을 세분에 대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심문을 하고 오늘 재판절차를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짧게 상의한다. 먼저 검찰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보안법사건에서 강조하는 이북이 정부를 참칭하고로 시작되는 상투적인 부분은 생략한 채 '피고인들이 이적단체가입, 반국가 단체 구성원과 통신연락, 잠입 · 탈출. 찬양 · 고무 등 공소 제기한 짧은 모두진술을 한다. 어떤 사례에서처럼 이념적 적을 대하는 적의와 감정적이고 살벌한 어투가 아니었다.

변호인단의 모두진술이 이어졌다. 진술전체를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 먼저 심재완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반통일, 반인권성을 사례별로 실증(?)하고 이북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과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규정의 부당성을 각종자료를 통해 지적하고 특히 이북이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검찰이 맹목적이고 상투적인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7.4남북공동성명 정신으로 결성되고 6 · 15, 10 · 4선언 이행에 헌신해 온 범민련을 새삼스럽게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씌우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영선 변호사는 먼저 범민련이 헌법정신을 부인하지 않고 평화적,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는데 어떤 면에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태롭게 했는지 검찰은 석명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등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고 통일행사와 남북교류사업을 해왔는데 뒤늦게 국가보안법상 지령수수 잠입 · 탈출 등 혐의를 씌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하다. 그리고 범민련 공동사무국 박용 사무총장이 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작원으로 임의 규정한데 대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며 신분보장을 요구했다. 사법부가 과거 국가보안법관련 사건 판결에서 숱한 오류가 있었음이 최근 바로 잡혀지고 있음을 상기하며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공판에서는 대법정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법정에 세워진 세분의 모두진술이 있었다.

먼저 이규재의장은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법이 되고 있음을 인혁당 재건위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말하고 이 악법으로 피해를 당한 이들이 뒤늦게 명예회복과 물질적 보상을 한들 죽은 자와 그 가족들의 평생고통을 어떻게 보상하겠느냐며 국가보안법의 반통일성, 반인권을 넘어 반인륜악법임을 상기 시켰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독재 권력을 비호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제약하며 사상 ·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1989년 임수경과 박철언이 다 같이 방북했는데 한사람은 감옥에 가고 한사람은 승승장구 출세를 하는 등 법 집행의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2001년 통일축전에 수백 명의 민화협, 종단성원들도 방북했는데 범민련과 통일연대 소속회원만 연행 재판에 회부 되었다며 그 범민련 관련자들도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2004년부터 정부승인을 받고 방북했는데 그동안 아무 일 없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현 정권의 6 · 15, 10 · 4선언을 부정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반북대결정책을 비판했다. 범민련은 결코 불법단체이거나 이적단체가 아니며 범민련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연합 · 연방제통일, 국가보안법폐지 투쟁은 백번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경원 사무처장이 진술했다.

(범민련의) 자주통일 운동은 7 ·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과 남북기본합의서 6 · 15공동선언의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라 실천을 해왔다. 남과북 다 같이 서로 먹거나 먹히는 것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존 · 공영의 정신으로 어느 일방만을 지지하지 않았고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해 평화적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권은 비핵.개방. 3000구상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 등을 주장하며 이전의 남북합의 들을 뒤엎고 남북합의정신으로 통일운동해온 범민련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남쪽의 자본주의와 이북의 사회주의 모두 우리민족이 발전시켜온 역사적 자취(산물)로서 무리하게 일방적인 사회통합하는 것보다는 장.단점을 서로 수렴해 후대들이 체제와 제도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남북합의 정신을 토대로 강령과 규약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자주통일운동을 해온 범민련을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천만번 부당하다고 공소제기를 반박하다.

또한 공소사실과 관련 범민련공동사무국 박용 사무총장과의 통신연락은 국정원에서 감청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해 왔고 3자연대차원에서 남측본부와 공동사무국사이의 자주통일과 관련된 업무연락일 뿐이다.6.15남측본부도 같은 방법으로 통신연락을 해왔었다. 찬양.고무.선전.동조 등과 관련해서는 각종 문건 가운데 몇 가지 문장만을 뽑아 자의적으로 해석 대남적화통일노선에 동조했다는 공소내용은 과거 국가보안법관련 사건에서의 냉전공안시각과 다름없다. 지령수수와 관련해서 지령이란 주고받는 관계가 수직관계여야 하는데 범민련의 남북해외본부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관계라고 반박했다. 또한 회합과 잠입.탈출과 관련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승인받고 평양 등에 다른 통일행사 교류협력행사 참가자와 함께 다녀왔을 뿐 신분을 속인 일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국정원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대화록'은 국정원이 이미 압수수색해 온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공안당국의 그동안 입건하지 않았었다며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던 활동들을 문제삼고 있다면서 이명박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국정원이 비위를 맞추고 정치검찰이 국가보안법을 들이댄 것이 이사건이라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부인 반박했다.

마지막을 최은아 선전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존립의 부당성 이북이 반국가단체이며 대남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검찰주장이 부당성, 이제까지 합법적으로 남북으로 오가며 자주통일행사와 사회문화교류사업을 해온 일을 정권이 바뀌면서 불법행위로 몰아세우는 부당성 통일운동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 밖에 없는 상대쪽을 공작원으로 몰아붙이는 부당성, 이북의 주장과 유사하다하여 지령수수로 찬양.고무.동조 등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사례를 들며 공소사실을 반박하다.

이렇게 소송 양당사자들의 모두 진술을 하는 것으로 첫 공판이 끝났다. 다음 재판일을 정하고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오전오후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법정은 가능한 대법정이나 중법정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폐정을 선언했다. 통일일꾼들의 모두 진술을 공명하고 지지하는 의미의 큰 박수가 다시 터졌다 역시 범민련답게 잘했다는 평가였다. 방청했던 대부분은 더욱 굵어진 빗발을 뚫고 남영에서 있는 범민련후원주점으로 떠나고 있었다.

'꽃님이네 집'에 들르니 8월의 곰배령은 꽃융단이더라~

-강원도 점봉산 곰배령을 다녀와서-

김혜순 | 양심수후원회 운영위원

13일까지 기행기좀 써주세요, 부탁했는데 많이 바쁘셨는지 답이 없다. 중간에 다리를 놓은 죄로 내가 또 글을 써야 한다. 교통사고가 난 터라 목이 뻣뻣한데..... 후원회 사무국장님은 꼭 옴시롱 회장이 있음에도 나에게 부탁한다. 에구 에구 힘들어!!!

기행 준비는 원시적으로 시작된다. 모일 때마다 기행지를 물색하다가 으뜸일꾼과 가까운 사람들이 이번엔 더운데 산 속으로 가는게 어때, 봄이니까 미리 봄 맞으러 살짝 남으로 내려 가볼까? 장소가 물색되면 왕회장인 권 선생님께 재가(?)를 받는다. 오케이하시면 기행지 주변에 가볼만한 곳을 알아보는데 주로 역사성을 지녔거나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나, 아직 개발이 덜 된 곳이나, 옛 사람의 자취나 삶의 모습이 그대로인 곳 – 한마디로 소란스럽지 않고 오붓하게 다닐만한 곳을 찾는다. 갈수록 이런 분위기다. 이제는 아주 기행을 이곳저곳 다니지 않고 푹 깊은 산 속에 숨었다 나오고 싶어한다. 그래서 이번엔 여름에도 땀 안 흘리고 산행이 가능하다는 점봉산 곰배령으로 정했다. 답사팀을 선발해 보냈는데 먹을 곳과 잠잘 곳을 빼곤 정말 딱 곰배령만 건져온 것이다.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2리 꽃님이네집 가는 날–전날도, 당일인 7월 18일도 비가 무섭게 왔다. 벌써 겁먹은 사람들은 버스에 몸을 실지 못해 빈자리가 꽤 있다. 불길도 헤치고 물길도 헤엄치며 다닌 기행이라 용감하게 떠나긴 했는데.....비 덕분에 훨씬 운치있는 산을 만났다. 진동계곡 오르다 왼쪽에 들러 송어집에서 회도 먹고 거나해져서 무방비상태로 비포장길을 달려 차에서 내렸다. 캄캄하다. 선발대가 수선스럽다. 내려서 100발자국쯤 걸어올라가야 하는데 물길이 있다. 준비없이 달려든 우리는 어둠과 떨어지는 물소리와, 발목까지 잠기는 물에 잔뜩 겁을 먹었다. 어른 아이할 것 없이. 핸드폰을 점점이 켜서 겨우 건넜다. "열하일기"에 나오는 '일야구도하기'가 이랬을려나– 작은 위험에도 우린 몹시 놀란다.

길건너니 안심, 그러나 젖은 몸으로 활동이 부자유스럽다. 그 와중에도 으뜸일꾼 길자씨의 본색이 드러난다. 빗속에서 감자를 갈아 부침개를 번갯불에 콩구워먹듯 구워낸다. 굵은 빗속에 옥수수 막걸리에 꽃님이네 집이 들썩들썩–삼팔선 이북이었다 전쟁이 끝나니 남한 땅이 되었다는 이 곳에 쉴새없이 비가 내린다.

누구랄것도 없이 빗소리에 방음벽을 치고 맘껏 노래하고 소리지르니 좀 미안스럽다. 좀 조용하게 지내도 되련만.....

담날은 갰다. 들고간 우산은 양산이 됐고 아이들의 훌륭한 무기가 돼주었다. 강선계곡을 따라 곰배령 오르는 길 – 진동리 상부의 숲은 산림청이 천연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강선리 계곡은 진동리에서 점봉산 정상 쪽으로 이어지는 가장 긴 골짜기로 진동계곡의 원류다. – 유전자보전지역으로 묶여 통행이 금지되다가 하루 100명씩 제한적으로 입산이 허용된 지역에 우리가 슬며시 그 혜택을 누린다. 어제 일야구도한 냇가를 건널 때 남편이 업어준 기억이 새롭다. 왼쪽으로 큰 둠벙을 만나고 여울을 만나고 개울을 건너며 물장난도 치고.....정말 땀 안나고 가다가 장닭과 오골계가 노니는 집에서 냉커피와 냉미숫가루를 15잔에 3만원을 주고 먹었다. 잠시 땀 식히며 우리 일행을 먼산 바라보게 해준 봉숭아 피던 그 집, 두 번째로 향긋한 추억이다. 내려올 땐 저 닭은 못 보리라 했는제 해필 닭 잡는 사람이 없어서리.....

오르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원시림답게 산악의 모습이 범상치 않음을 곳곳에서 만났다. 벼락맞은 나무, 파헤쳐진 멧돼지 흔적들, 잣까다 도망간 다람쥐, 나무를 타고 오르는 이끼 생물들, 숲의 사나이 소바즈처럼 등걸옷을 입은 기이한 나무들... 어르신 선생님들과 또 이런저런 추억을 나누며 세대를 오가며 산 정상에 오르니 안개가 자욱하다.

정상에 오르면 꽃의 융단이 펼쳐진다오 –강선리 계곡의 등산로를 통해 올라설 수 있는 곰배령. 이곳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수많은 자생식물이 화원을 이루는 곳이다. 장마가 끝이 나고 본격적인 여름 꽃이 피기 시작해 가을까지 종류를 바꾸어가며 수많은 식물이 꽃을 피운다. 털이풀, 둥근 이질풀, 참산부추의 대 군락 앞으로 점봉산 능선들과 골짜기가 어우러져 빚어내는 풍광이 멋지다. – 이런 감언이설에 속아 따라온 채지영 선생님이 먼저 올랐기 망정이지 함께 올랐음 맞아 죽을 판..... 안개 속에 숨은 산은 한치 앞도 안보여주고 초록의 푸른 융단만이 쫘악~~~그래도 아이들은 휘감는 안개속에 온몸을 맡기며 뛰놀고, 우덜은 평평한 땅을 놀릴 수 없어 곧바로 말타기 하고, 짐짓 우아한 지은병 민형 부부는 안개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등장하고.....우리 모두는 축축한 종족이 돼 있었다.

내려올 땐 힘이 들었다. 성재 말처럼 누구에게 기댈 수 없으니 스스로 이겨내며 걸었다는 말이 누구에게나 공감이 갈 정도로 꽃님이네 집은 멀고 멀었다. 다 보내고 우리 선남선녀들의 세 번째 추억만들기–금은보화귀금속전자제품 다 벗어놓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으뜸일꾼의 물귀신 작전 성공–세 명이 빠지고 두 명은 건재함....햇볕에 몸을 말리며 투덜투덜 내려왔다. 해가 중천에서 따라온다. 이제 젖는 게 두렵지 않다. 개울 첨벙첨벙 건너 꽃님이네로 들어서니 히야~ 맛있는 비빔밥이다. 나물에 쑥쑥 비벼 된장국과 함께 먹으니 어딜 더 가지 않아도 너무나 행복한 오후–

잠시 정적같은 휴식이 찾아온다. 떠나오는 게 아쉬워 짐 실어놓고 반침에 앉아 잠깐 망중한에 젖던 고향마을에서처럼 – 누구는 쌩~하니, 자동차로 떠나지만 누구는 점봉산의 그 바람 그 향기 그 느낌 담아갈 듯 머뭇머뭇 뒤돌아보며 눈길을 남겨놓았다.

01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 등 환노위 위원들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기습상정을 졸속 시도하여 민주당 등 야당들이 반발하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추미애 위원장의 사회권을 찬탈하고 불법적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기습상정한 조원진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와 특수공무방해 행위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히다.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은 로버트킴 전 하원외교위원회 국장을 심임 이른바 '북한 인권대사' 로 내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 이 30일 (현지시간)자로 보도하다. 로버트 킹 전 국장은1983~2008까지 톰.랜토스 전하원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바있음

서울 삼성동 웨딩의전당 2층 에머랄드홀에서 통일원로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족21> 100호 기념식 및 후원의 밤'이 열리다. 권해효 씨의 사회로 발행인 명진 봉은사주지스님의 인사말에 이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민주당 의원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 등의 축하인사말이 있었고 정창현 <민족21> 대표의 답사가 있었음 또한 기념식에서는 소리꾼 김지희 씨의 판소리 형식의 축가와 10여 년 동안 <민족21>과 기사교류를 하며 동행해 온 북측의 <통일신보>, 일본의 <조선신보> 임직원들도 화환을 보내 100호 발행을 축하하고 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 해외에서도 영상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전해오다. 권오헌 김호현 김익, 리정애, 이용준 모성용 임미영 함께 하다.

02

남과 북이 개성공단과 관련3차 실무회담(4차 접촉)을 이틀째 가졌지만 억류된 근로자 '유씨' 문제와 토지임대료 등에 대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차기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회담이 종결되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측은 대부분의 시간을 '억류중인 유씨문제' 를 거론하고 통행자유등 제한조치해제 등을 요구했으며 북측은 공단토지 임대료문제를 우선 협의할 것을주장했다고 밝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아프가니스탄 전략 발표 이후 처음으로 탈레반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이날 새벽 1시(현지시각) '칸자르(Khanjar)' 또는 '스트라이크 오브 더 스워드(Strike of the Sword)' 로 명명된 작전을 개시하여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에서 탈레반을 공습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전하다. 작전에는 미 해병대 병력 4천명이 참여하여 해외 작전 규모로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인 것으로 알려지다.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산 북방 신상리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히다. 합참은 이날 오후 "북한이 원산 북방 신상리에서 오후 5시 20분, 6시, 7시 50분, 9시 20분께 각각 1발씩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히다. 북은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상리의 북동쪽 직선거리 450여km의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한 바 있으며 2차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5월 26일에도 신상리에서 지대함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 한바 있다.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61회 목요집회를 열다. 이영 상임의장의 여는말, 명숙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등,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퇴와 관련 이명박정부의 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하는 강종압력행패를 규탄발언이 있었음

03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국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주요 간부들의 중징계 방침과 고발을 당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전교조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경찰관 50여 명을 동원해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과 사당동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펼치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 창립 역사상 본부가 압수수색 당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2차 시국선언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다. 이와관련 전교조는 본부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압수수색은 민주주의수호교사선언을 위축시키려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명박정부의 전교조탄압을 규탄하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주회로 '시국선언관련 전교조 압수수색 정치검찰규탄 기자회견' 을 열고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광란적인 정치보복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 민주노총 김명자 부위원장, 창조한국당 최고의원 진보신당 정종원 부대표, 임기란 전 상임의장 등 규탄발언과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회견문에서는 ▲시국선언교사 징계방침철회 ▲압수수색 검경의 사과 ▲이명박정권의 전교조 탄압중단 등을 촉구하다.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아침 7시 왕십리 행당동 남승진(여)씨 집에 들이닥쳐 남씨 소유의 노트북 하드와 CD,

USB, 인터넷 정세자료와 책등을 압수해 가다. 보안수사대는 남씨를 장안동 대공분실로 강제연행 2007년 청년문예단체인 '꾼'에서 활동한 행적등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조사하다.

내자동 서울경찰청 인근에서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참사 재연 훈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용산참사를 정권과 경찰에 의한 사실상의 '살인'으로 보고 있는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의 '용산참사 재연훈련'을 "살인진압 예행연습"으로 규정하며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하다. 용산대책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직고인들의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살인진압훈련을 하는 것은 경악할 일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도리어 국민을 적군처럼 취급하는, 가히 파시스트적인 발상을 노골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다. 경찰의 방해로 당초 11시 정각에 경찰청 정문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은 인근 외환은행 건물 앞에서 열다. 경찰은 유족들과 기자회견에 참석하려던 대학생들을 한때 고착하기도 하다.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평통사와 부설 평화.통일연구소가 공동주최한 '7.4남북공동성명에 비춰본 한반도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를 <북미관계,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하나> 주제로 진행하다. 평화만들기 김승국대표 사회로 문규현 평통사 공동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장의 '4차 북미 핵위기 발생 과정과 전망 및 과제'란 발제를 하다. 발제에서 강교수는 "핵무기 폐기와 주한미군철수 및 한미군사동맹 폐기는 연동돼야 한다"고 주장하다. 그는 또 "완벽한 평화체제는 한반도 전쟁위협을 자행해왔던 미국의 전쟁위협 토대인 주한미군 철군과 한미군사동맹 폐기가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응조치로서 북도 중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을 철폐시켜야 한다"고 덧붙이다. 한편, 강정구 교수는 '보론'으로 "제2의 조미 공동코뮤니케 '북미공동성명' 및 '제2의 7.4 남북공동성명' 추진을 제안한다"고 밝히고 북.미 공동코뮤니케에 △대북 적대정책폐기 △평화협정 협상 시작선언 △남북관계 불간섭 및 민족자결권 존중 △북한 핵시설 불능화 작업 재개 및 핵재처리 중지 등이 담겨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철기 동국대 교수, 안문석 한서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토론회가 열리기에 앞서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의 위기,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북의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백철수 부총국장은 개성공단 기업협회(회장 김학권)가 지난달 25일 '개성공단 기업살리기 대책회의'에서 '통행과 신변안전문제 등 즉시해결 촉구' 주장과 관련 '개성공업지구 사업이 오늘의 지경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귀측당국에 의해 산생된 것이므로 할 말이 있으면 귀측당국에 해야할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이번과 같은 불순한 촉구를 해올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통지문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지다. 통지문은 이어 '우리가 남측에 땅 값과 노임을 낮게 정해 주는 등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경영조건을 부여해 준 것이 6.15공동선언에 따른 특혜 중 특혜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에 그 무슨 철회를 촉구한것은 은혜도 예의도 모르는 상식 밖의 행동'이라고 비난하다.

04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은 7월 4일 08시부터 08시 30분 사이에 깃대령 일대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10시 45분경 같은 장소에서 동해로 1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밝다. 또한 12시와 오후 2시 50분, 4시 10분, 5시 40분 경에도 역시 미사일 1발 씩이 발사된 것이 포착되어 모두 7발의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밝히다. 한편 이북은 7월1일부터 10일까지 원산 앞바다 등 동해 일부해역에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한바 있음.

용산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앞에서 용산범대위주최로 시민사회단체성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철거민살인진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범국민추모대회'가 열리다. 쌍용자동차가족대책위 회원들의 무대인사와 고 이상림 씨의 부인 전재숙(69) 씨의 규탄발언에 이어 문예공연팀 '질러'의 공연이 펼쳐지다.

05

서울역광장에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주최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탄압중지 경쟁교육반대 전국분회장 결의대회'를 열다. 전국에서 모인 1500여 전교조 분회장들이 함께한 가운데 본대회에 앞서 전위원장들은 '전교조 전위원장단 현 시국에 대한 입장발표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다. 이어 장진후 전교조 위원장의 대회사.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장, 신승철 민주노총 사무총장, 현인덕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등 연대사가 있었고 결의문에서는 7월 15일까지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위한 서명운동을 40만 교사와 함께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하다. 놀이패 '걸판' 전교조 노래패등 문예공연이 있었음

06

마산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정태 화물연대전조직국장 관련 소내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화물연대와 인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다. 이날 구치소 정문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마치고 우선 박정태님을 면담하여 구체적 침해사례를 전해들은 후 마산구치소 소장을 면담하다. 이 자리에서는 6평 남짓한 방에 5~6명이 수감되는 과밀수용, 야간 단수조치와 선풍기 사용금지 및 출역 후 귀소 시 과도한 몸수색문제, 공안수들을 일반사범들과 혼거시키는 문제를 집중 항의하다. 이에 구치소건물의 노후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내규로 인한 수용자들의 인권침해가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고 절전과 절수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어 시행해오던 선풍기작동금지와 단수 문제를 철회하고 또 독거방으로의 이감, 몸수색을 완화하는 등 처우개선하기로 약속하다. 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렬 강성철님 양심수후원회 임미영사무국장 부산화물연대 조직국장 마산인권활동가 천은미님 함께 하다.

울산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민주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이영도님을 면회하다. 이영도님은 울산미포조선용인기업원직복직투쟁으로 12월 24일 현대미포조선 소각장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하여 1월 23일 사측과 노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3자의 합의로 일단락되어 100m 굴뚝 위에서 혹한의 추위를 견딘 고공농성자들은 자진 출두해 구속되었음. 아직 건강이 다 회복되지 못한 듯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구속 후 사측이 보여준 일련의 기만적인 노동자탄압에 대한 토로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노동자파업투쟁상황에 깊은 관심과 연대의 의지를 보이며 위로하다. 양심수 후원회 임미영사무국장 외

북의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논설 '자주권 확립은 민족문제 해결의 근본담보' 에서 "자주권 확립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의 근본담보" 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보도하다. 사이트는 "제국주의자들은 매개(각각의)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 확립을 위한 투쟁을 가로막으려고 획책하고 있다" 면서 그 실례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침략을 들었다. 이어 사이트는 그 증거로 "남조선에 1,000여개에 달하는 각종 핵무기들을 끌어들여 그곳을 극동 최대의 핵무기고로 전변시킨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기정사실화한 각종 침략전쟁계획들을 작성해놓고" 있는 '사실' 을 들었다. 더 나아가, 사이트는 이처럼 미국이 핵위협을 가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선군의 기치높이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것은 자주적 권리"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와서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인 우주개발권과 이용권, 우리의 자위적인 전쟁억제력 강화까지 가로막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다" 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하다. 또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동족대결을 획책하고 외세의 반공화국 소동에 적극 합세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최종 목표로 정하고 북남 관계를 회대로 악화시키면서 군사적대결을 서슴치 않는 흉심을 드러내고 있다' 며 6.15, 10.4선언 기치를 들고 나갈 것을 온겨레에 호소하다.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 앞에서 건대 총학생회 등 대학생 단체들 학생 50여명과 민가협어머니들, 양심수후원회 등 여러 단체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건대 총학생회장 등 3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데 항의하는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건국대 총학생회장 하인준씨 등 건대 소속 학생간부 3명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에 체포돼 홍제동 보안분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건대 총학생회 쪽에 따르면, 하 씨와 정치대 학생회장 이태우, 생활도서관 어광득씨 등 3명은 5일 저녁 각기 다른 장소에서 경찰에 연행되다. 건대 총학생회와 '대학생 공안탄압 대책위원회', 'MB심판, 민주회복을 위한 대학생행동연대' 등 대학생단체와 함께 연기자회견에서 "대학생 활동가들에 대한 명백한 표적수사이며 불합리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탄압하는 모습"이라고 반발했다. 사회자의 경과보고 학생회 대표의 연행자소개와 규탄발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건대부총학생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07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편파수사 정치검찰" "남북대결 공안기획가" "강부자 비리혐의자" 라고 비난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하다. 천 내정자는 검사 생활의 대부분은 공안 요직에서 보내며 1993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1998년 '영남위원회 사건', 2001년 강정구 교수 '만경대 필화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들을 다뤘다. 서울지검 공안부 평검사 시절에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과 관련해 간첩 혐의로 구속한 김낙중 전 민중당 대표에 사형을 구형했고, '영남위원회 사건' 때는 김창현 당시 울산 동구청장 등 15명을 구속했다. 김 전 대표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나, '영남위원회' 피의자 15명 중 12명은 대법원에서 무죄 방면됐다. 또 2001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 때는 '만경대 필화사건' 의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당시 8.15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을 공항에서 연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천 내정자가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담당했던 '용산참사' 사건의 철거민 희생자 유족과 2001년 8.15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 김규철 범민련 남측본부 서울

연합 명예의장을 비롯하여 한국진보연대의 이강실 상임대표의 천내정자의 내정을규탄하는 발언을 하다.

1981년 이른바 '학림사건'은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안당국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 반국가단체로 조작한 것이라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밝히다. 진실화해위가 '학림사건'으로 알려진 '전민학련, 전민노련 반국가단체 조작의혹사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안당국은 수사과정에서 이태복(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함된학생운동 계보를 확보 배후 조종 혐의로 전민학련 관련자들을 강제 연행.불법구금하고 전민노련 관련자들도 강제연행.불법구금 당한 사건이다. 이들은수사과정에서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등 가혹행위를 통해 진술을 강요당했고, 검찰 조사 시 진술을 번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드러났다고 설명했다.

08 ----------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경찰청 보안국에 체포돼 홍제동 보안분 에서 조사를 받은 하인준 건국대 총학생회장 등 건대 학생간부 3명이 석방되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사임한 뒤 이날 위원회건물 10층 강당에서 이임식을 갖고 현정부의 인권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다. 안위원장은 '현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려했고 <효율적인 운영>이란 미명아래 적정한 절차없이 유엔 결의가 채택한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기구축소를 감행하여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며 '국가인권위의 설치근거와 법적업무와 권한에 대한 성의 있는 이해를 애써 외면하는 듯한 몰상식한 비판, 무시, 편견, 왜곡의 늪속에서 갈무리 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겪은 사람은 저 혼자만이 아니' 라면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유린하면서 정부의 폭거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동료직원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다. 마지막으로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 는 만고의 진리를 잘 알고 있다 며 ' 우리들 가슴 깊은 곳에 높은 이상의 불씨를 간직하면서 의연하게걸어가자 '고 당부하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7일 (현지시간)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유로뉴스> 와 지난 10년의 햇볕정책과 관련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돈이 북한사회의 개방을 돕지 않고 핵무장하는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망발하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실 가장 폐쇄된 나라의 지도자' 라며 '모든 나라가 개방화와 국제공조를 통해 발전하고 있는데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된,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라고 하는 등 해외에서 외신을 통해 제 민족을 헐뜯는 망발을 하다.

재일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일성주석 15주기를 맞아 평양에서 '중앙추모대회' 가 열렸다고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신문에 따르면 추모대회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했고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김영남 위원장이 추모사를 했다고 하다. 추모사에서는 '김일성 동지는 나라의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민족의 지상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정확한길을 밝혀 주셨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온세계의 자주화 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며 세계진보적 인민들의 다 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신세계정치의 공인된 원로이셨다' 고 기리다. 이날 추모대회에는 '당과 군대, 국가 간부들과, 당 무력기관, 당중앙기관 일꾼들, 혁명열사 유족들 접견사, 연고자들, 영웅들 공로자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재일본 조선인 대표단, 해외동포들, 반제반전 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했다고하다.

촛불집회 관련 연행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후원회 회원 김현수님을 면회하다. 갑자기 재판일이 정해져 재판을 받고 1년 6월 구형을 받았으며 다음 선고공판을 7월 15일로 정해졌다고 함. 치환이 있으나 소내에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아 출감 후 치료방법을 지인들과 함께 모색해보기로 하였음

09 ----------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62회 목요집회를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가운데 약식으로 진행되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최근 국가보안법 악용사례와 공안탄압규탄발언이 있었고 민가협 박찬주 간사가 국정원의 권한강화책동을 발표하다.

10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골안장식이 경남 진해시 진영읍 봉화마을에서 3만 추모객의 애도속에 진행되다. 아들 노건호씨의 품에 안겨 들어선 고인의 유골함을 무덤앞 제단에 놓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례, 종교의식, 헌화와 분향으로 이어지다. 유족들과 김원기, 임채정 전 국회의장, 한명숙,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한나라당을 제외한 각 당 대표들이 헌화하고 시민대표 14명도 헌화하다. 고인이 생전에 즐겨부른 '상록수'를 배경음악으로 생전모습의 영상물 상영이 있었음. 오

후 1시 45분 고인의 유골을 담은 석관위로 자연석 비석이 놓이면서 고인은 영원히 사람들 곁을 떠나가다. 한편 이날 밤 부산대학교에서는 총학생회 주최로 추모문화제 <다시 바람이 분다> 추모공연이 진행되다. 12,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유족을 대신해 감사 인사말을 하다.

고 노무현 대통령 49재를 맞아 덕수궁 대한문 앞에 다시 시민분향소가 차려져 많은 시민들이 찾아 분향하다. 오후 3시부터는 태고종에서 6시에는 원불교에서 이어 조계종 주관으로 각기 49재 의식이 이어지다. 저녁 10시에는 1000여 시민이 함께하여 추모문화제가 진행되다. 민중가수 손병휘씨등이 출연 추모공연이 이어졌고 청아스님 등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추모의 촛불을 밝히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MB심판 민주회복 대학생 행동연대 주최, 민주회복 예술장악저지 대학생예술공동행동이 주관하여 '노무현전 대통령 추모 민주회복 공안탄압규탄대학생 문화제 <다시 새들은 세상을 뜨는구나>가 열리다. 대학생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용산참사 양회성 고인의 아들 양종원씨의 호소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구로정비지회 가족대책위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공장굴뚝에서 58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봉민 구로 정비지회 부지부장이 아이들에게 보내온 편지를 읽었고, 정부의 표적감사를 겪고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학부모들의 결의 발언, 부당하게 대공분실에 강제연행 조사받았던 건국대 하인종 총학생회장,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MB정권 규탄발언과 대학생문예팀들의 추모공연이 있었음

이북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보도 제952호를 통해 국방부가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 에서 전시에 이북 지역 안정화를 위해 예비군 10만여 명을 투입하는 '민사작전' 과 관련 "우리 공화국(이북)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고 존엄 높은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전면부정" 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조선신보>를 인용보도하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 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소동과 무분별한 무력증강책동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그로 하여 북남관계는 사상최악의 지경에 이르고 통일의 앞길에는 검은 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나라의 통일을 전체조선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은 우리의 시종일관한 입장"이지만 "평화를 유린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침략자, 도발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는 것이 우리의 본때"라고 경고했다고 하다

11 ----------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 범대위와 야4당, 범종단, 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7.11범국민 추모의 날' 집회가 열리다. 추모의례에 이어 장상 민주당 최고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유원일 창조한국당의원, 조승수 진보신당의원,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등 용산 참사해결촉구발언이 있었고 용산참사 이성수 고인의 부인 권명숙님이 유가족 입장 발표문을 낭독하다. 유가족과 범대위는 정부당국의 외면이 계속되면 '시신공개' 와 '청와대로 행진' 을 강행하겠다고 절박성을 호소하다. 대회를 마치고 유가족과 참가자들은 용산참사 현장까지 행진에 들어갔으나 갈월동 버스역 근처에서 경찰의 폭력저지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속출하다. 이를 하의 하던 유원일 창조한국당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유가족을 보호하려한 이정의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행패가 자행되다. 또한 이를 취재중이던 KBS사진기자를 연행하려 했으며 카메라를 파손시키기도 하다. 그 자리에서 농성을 하던 참가자들은 인도로 다시 행진 참사현장에서 추모미사에 참가하다.

12 ----------

6.15한마음 통일산악회 7월 산행날이었지만 장맛비가 세차게 내려 원래계획 되었던 우이령탐방을 끝까지 하지 못하다. 모두 15명이 함께하여 40년 넘게 출입금지지역이었던 우이령(서울 강북구 우이동에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으로 가는 서울.경기의 고갯길)길을 오르고 싶었지만 호우경보가 내려져 국립공원 입산금지령이 내려서 250M쯤 오르다가 되돌아 올 수 밖에 없었음. 우이령길 입구에서 점심겸 뒷풀이를 하면서 산상강연을 대신해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사무차장의 최근 국가보안법적용 공안탄압사례발표를 듣다. (후원회소식213호 보심)

13 ----------

용산참사 철거민 유가족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용산참사 해결' 과 검찰 수사기록 3,000여쪽 공개를 요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이상림 씨의 큰 아들인 이성연(42) 씨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2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방청객좌석에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던 중 오후3시 30분께 자리에서 일어나 "용산참사 해결하라. 검찰 수사기록 3000쪽 공개하라"고 적혀 있는 50cm가량의 종이를 들고 천 후보자에게 항의하다 국회 경위들에 의해 끌려나가다. 이번 기습시위와 관련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는 대변인 논

평을 내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정치검사 공안검사 천성관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총장 임명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이라며 "오늘 유가족의 항의는 정당하다. 천성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하다.

여의도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민생민주 국민회의(준), 용산- 범대위, 미디어행동 등 공동으로 '천성관 검창총장후보 인사청문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을 열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숱한 의혹덩어리인 천성관 검찰총장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고 결의하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여는 말, 오병윤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종권 진보신당부대표, 용산참사 윤용헌고인의 부인 유영숙님, 예수살기 김경호목사등 결의발언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21차 제3차운영위가 열리다. 전차 회의록 보고와 회계보고에 이어 3차 안건으로 만남의 집 건립과 회원 확보의 늘어난 양심수에 대한 후원사업에 집중하는 문제 등 논의하고 다음 운영위날짜를 8월 20일로 정하고 마치다. 김호현, 김혜순, 김길자, 안병길, 임미영, 모성용 참석

14 ----------

광화문미 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양심수후원회, 범민련남측본부등 9개단체 공동주최 "대북 제재 중단! 북미 직접 대화 개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강요 반대!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재연장 반대! 미군가족주택 임대보증 강요 규탄!"이라는 주제로 광풍폭우 속에서 118차 반미연대집회가 진행되다. 광풍과 폭우에도 불구하고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서도 집회를 지켜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복열 범민련대외협력국장의 사회로 박석분 평통사회원팀장, 김강연 인천 평통사교육부장, 수열 사회진보연대사무처장의 규탄발언에 이어 한찬욱 사월혁명회사무처장이 요구서한을 낭독하다 마치고 요구서한을 민가협 이영 회장이 미 대사관에 전달하다. 임미영, 모성용 함께하다.

현대경제 연구소 통일 경제센터가 금강산 관광중단 1년을 맞아 지난 6-7일 사이 서울과 6개 광역시 만 19살 이상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바에 따르면 현정부의 대북정책변화를 요구한 의견이 84.3%로 현상태를 유지하라는 의견은 15.7%였과, 금강산 관광재개방식에서도 <북의 사과요구>등 수동적 접근보다 협상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의견이 64.8%로 나타난것으로 발표되다.

15 ----------

이원기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의장이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등록금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등록금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현장에 투입된수 십여 명의 경찰에 의해 연행되다. 이 의장은 지난 5월 2일, 등록금과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습 게릴라 도심행진을 펼친 것과 관련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3차 소환장이 나온 상태였음.

종로경찰서 앞에서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주최로 소속대학생과 사회단체대표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이원기 한 대련의장 강제연행규탄과 즉각석방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학생대표와 학부모대표, MB심판 민주회복 대학생 행동연대 김지윤 대표등 규탄발언과 권오헌 양심후원회 명예회장이 기자회견문 낭독했음 - 마치고 권오헌, 박희진 한국청년단체연합(준)공동대표, 학생대표등 이원기의장 면회하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한정식집에서 비전향 장기수 신현칠 선생님께서 최근 펴내신책 <면하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변하고 있다>의 조촐한 출판 기념 모임이 있었습니다. 책을 펴낸 삼인 출판사주선으로 선생님 내외분과 옥중동지들인 통일광장의 임방규, 김교영, 송세영, 한재용, 양희철 선생님,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가까이 모셨던 발문을 쓴 작가 박소연님, 책을 펴내는데 타자 등으로 애써준 000님, 매주 선생님을 찾아 뵙는 한찬욱 사월 혁명회 사무국장, 권오헌이 함께했고 출판사에서는 홍승헌 부사장등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신현칠 선생님께서 책을 펴내게 된 짧은 말씀과 책이 나오게되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이 있었고, 임방규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조국사랑정신 등 고귀한 삶을 소개하며 축하말씀을 하셨고, 권오헌의 축배제의로 다같이 잔을 들며 출판 축하와 선생님의 건강하심을 기원했습니다.

이북의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이집트 샤름 엠 셰이도에서 열린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6자회담과 관련 '주권과 평등에 대한 존중 원칙이 부정되는 곳에서는 대화가 있을 수 없고 협상도 있을 수 없다' 며 '(6자)회담은 미국과 그에 순응하는 회담참가국 중 다수가 이 원칙을 포기했기 때문에 영원히 끝났다' 고 말하다. 또한 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공화국정부는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위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고 강조하다. 이번 비동맹운동정상회담은 세계지도자(정상)50여명을 포함한 118개 회원국이 참가했으며 세계금융위기와 식량부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초동 지방법원본관 522호실에서 회원 김현수님의 선고공판이 열리다. 김현수회원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되어 재판 후 서울구치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하다. 유학수님과 모성용 부회장이 저녁을 함께하며 조촐한환영식을 치루다.

16 ----------

팽택 쌍용자동차 공장점거 파업을 지지하는 정문 앞 농성장에서 함께 하다.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763회 목요집회를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말 (공안탄압과 대북적대정책규탄) 임기란 전 상임의장의 용산참사해결촉구발언, 홍익대총학생회장 한아름의 대학생연행규탄발언등이 있었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북의 2차 핵실험과 관련 '북핵및 미사일 발사등에 깊이 관련된 인물'에 대한 여행금지, 해외재산동결등 제재에 합의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다. 제재대상 인물로는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책임자, 리제선원자력총국장, 황석하 원자력총국 국장, 리홍섭 전영덕원자력연구소소장, 그리고 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한유로 력각산수출조합(조선련봉총화사) 책임자등 5명이다. 또한 제재대상 기업이나 단체로는 남천강 무역회사 이란에 소재하고 있는 홍흥 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등이다. 한편 이보다앞서 이같은 제재 움직임과 관련 유엔 주재 이북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안보리 결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혔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도와 사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고 우리를 압살하자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고 거부의사를 밝히다. 또한 '공화국이 창건된이래 미국과 일본이 제재를 적게 했느냐 우리는 반세기 이상 제재속에서 살아왔는데 제재와 상관없이 우리 방식대로 살아갈것'이라며 '제재를 해도 끄떡없다' 고 말하다.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준) 주최로 '비인권 전문가 현병철 차기 인권위원장 내정철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적인 선정기구 구성을 요구하다. 인권 연구소 '창'의 류은숙활동가,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간사, 김산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등은 발언을 통해 현병철 내정자가 인권활동과 무관하고 사회적으로 공개적인 추천과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는 부적격자라고 지적하고 내정철회를 촉구하다.

조계사 전통문화 예술 공연장에서 '국민주군 실현을 위한 시국선언자대회'가 열려 <천가지 방식의 저항과 희망찾기>를 제안하다. 대회에서는 '시국선언정국'의 서약을 학계를 비롯한 종교, 환경, 음악인, 노동자, 교사, 시인, 대학생, 보건의료인 여성 등 각계각층을 대표해 150여 선언자들이 서울을 비롯 경기, 부산, 전주, 대구 등 각지역에서 보여 결의를 다지다. 참가자들은 '전국에서 시국강연회를 열고 지역별로 1천개의 시국사랑방을 설치하고 앞장설분들과의 <시국간담회>를 진행하자'며 '위헌적 위법적 통치행위와 서민 말살정책을 날날이 밝히고 장기 집권구도를 파헤쳐 심판의 공감대를 확신해나가자'고 결의하다.

17 ----------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국보법폐지연대 범민련탄압공동대책위 주최로 '범민련구속인사 1차 재판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이행!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을 촉구하다. 기자회견을 열다. 김명섭 범민련남측본부서울연합사무처장의 사회로 홍안나 범민련경인연합사무국장의 경과보고 및 탄압사례발표에 이어 조영선 공동변호인단 주심변호사의 검찰이 공소제기한 범민련지도부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의 부당성'발표가 있었고, 권오헌 공대위상임공동대표의 범민련의 역사와 강령.규약 등 통일운동의 정당성을 발표하다. 그리고 하이준 건국대총학생회장의 최근' 안보위해 사범100일 수사계획에 따른 탄압피해자증언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노수회 범민련비대위위원장의 기자회견문낭독 후 기자들의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었음

18 ----------

서울역광장에서 야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를 열다. 전교조 소속 교사 4천여 명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시민 등 1만여 명 이 운집하여 "언론악법 철회하고 언론자유 보장하라" "비정규직 해고 중단하고 정규직화 시행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혈세낭비, 환경파괴 4대강 죽이기 중단하라"는 구호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진행되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청화스님의 개회사에 이어 민주당송영길 최고의원 민주노동당강기박대표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 진보신당 노회찬대표 등이다 민주주의역주행 부자살리기 등 이명박정부의 만민주 반민생정책을 규탄하다. 이어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쌍용자동차 노조투쟁에 공권력투입하면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했으며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미디어악법저지투쟁결의를 다짐하다. 이날 대회에는 쌍용자동차 가족대책위와 용산참사 철거민 희생자 유가족들이 연단에 올라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낭독하다. 이보다

앞서 전교조는 28,600여명이 교사들이 서명한 2차교사시국선언을 같은자리에서 발표하다. 대회를 마치고 용산참사 현장으로 옮겨 용산참사 추모문화제를 진행하다.

용산참사유족들과 용산-범대위화원등 100여명은 용산참사해결을 위해 서울광장에서 청와대까지 3보1배를 하려고 광장을 떠나 청계광장쪽으로 3보1배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경찰의 폭력에 막혀 뜻을 이루지 못하다. 유족들은 참사 180일이 다 되고 있는데도 이명박정부가 사죄도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은 커녕 희생자의 자식을 가해자로 구속하고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참사자체를 무시 외면 하고 있는데 분개하여 모든 책임이 청와대에 있음으로 그곳까지 3보1배를 하려했었음. 이상림고인의 전재숙님, 윤용현고인의 부인 유영숙님이 앞장서고 문정현신부, 노회찬 진보신당대표를 비롯한 범대위 활동가들이 함께하다. 그러나 경찰에 가로막혀 그 자리에 앉아 농성을 하며 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고 자진해산하다.

이북 주간지 <통일신보는> '불성실하고 대결적인 자세'라는 기사를 통해 '이명박정권이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 공화국의 건설적인 제안을 외면한 것은 결국 기업들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스스로 나가게 하려는 술책'이라며 '이것은 북남관계 파괴를 넘어 남조선의 중소기업죽이기 책동의 일환' 이라고 비난한 것으로 북의 인터넷 매체<우리민족끼리>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기사는 이어 '공화국의 동포애적인 조치에 의해 추진되어온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므로 공화국이 관련 법규를 일방적으로 결심하고 개정하면 으만이지만 북남관계와 남측기업들의 형편을 고려하여 현정세와는 무관하게 남측에 협상의 기회를 주고 협상안까지 제시해 주는 성의와 아량을 보여주었다' 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남측이 불성실하게 실무접촉에 임하고 있는것은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한 고의적이며 계획적인도발' 이라고 비?하다.

19 ----------

도렴동 외교통상부 정문 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시민사회단체 성원이 함께 한 가운데 '미국 동아태차관보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 을 열어 미국은 대화와 양립할 수 없는 대북제재와 봉쇄를 중단하고 북.미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제제와 봉쇄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와 국제여론에 밀려 대화하는 척 흉내를 내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 대북 협상의 자세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지적하다. 주정숙 부천평통사 공동대표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등은 발언을 통해 대북제재에 앞장서 미일과 공조하는 이명박정권을 규탄하다. 한편,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오전 11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북핵문제를 협의하고, 12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오찬을 가진 다음 유명환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등 외교안보라인 고위 인사와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미디어행동 학술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언론장악저지 총파업투쟁선포 기자회견' 을 열어 "언론노조는 21일 06시부로 언론악법 폐기를 위한 3차 총파업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면서 "이번 투쟁은 말 그대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해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몸을 내던져 싸우는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만약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 처리한다면, 언론노조의 총파업은 각계각층이 이명박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정부. 여당의 언론관계법 강행처리 시도에 항의해 지난해 연말과 올해 2월 총파업을 단행한바 있다.

용산참사희생자 시신이 안치된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서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등 시민사회단체 야 4당 대표등 150여명이 모인가운데 '용산참사유가족, 용산-범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을 열고 '대통령사과 없이 장례식 없다' 며 '영안실을 서울광장으로 옮길 것' 이라고 하다. 이상림 고인의 부인 전재숙님, 전농 한도숙의장등 결의 발언이 있었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참사고인들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지낸 다음 유족들과 범대위 관계자, 참가자들이 영안실로 가서 시신을 가져오려 했으나 경찰이 폭력으로 가로막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상자가 속출하다. 이성수 고인의 부인 권명숙님은 실신하기도 하다. 참가자들은 빈관을 메고 병원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이마저도 경찰 제지로 무산되다. 참가자들은 용산 참사현장으로 옮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주관의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추모미사' 에 함께했고 이어 진행된 용산범대위 주최 '용산참사 반년을 맞는 범국민 추모대회' 에 함께하고 야2당을 비롯해 1000여명의 시민이 모인가운데 이상림고인의 따님 이현산님의 유족인사, 사제단 빈민사목위원회 이강서신부, 백기완 통일문제 연구소소장등 추모사, '노찾사', '노래공장', 가수 박준씨의 추모공연이 이어지다.

인권문외한, 논문표절, 친일자손 등 논란의 주인공인 최병철

신임국가인권위원장이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오후 인권위 사무실에서 취임식을 갖다. 인권단체들은 인권현장에서의 활동경력이 전혀없고 현 위원장에게 국가인권위원장 직무를 옳게 수행할지 현행 민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반인권조항 3가지를 꼽아달라 는 등 총 15개 항목의 질의서를 보내다.

20 ----------

서울 종로구 문광부 청사앞에서 '5.18사적지 옛 전남도청의 보존을 바라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각계시민사회단체 성원이 모인 가운데 '5.18 구 전남도청 보존촉구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상생공존의 대안 '오월의 문'을 수용하라"는 기자회견을 열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전남 광주 소재 구 전남도청을 철거하겠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단들이 도청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 문광부가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은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강행 방침에 반발하며 전남도청 철거의 대안인 오월을문을 수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다.

여의도 국회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미디어법-공동행동 등 공동으로 '언론악법저지 비정규직저지 4박5일 100시간 비상국민행동돌입선포기자회견' 을 열다. 한나라당의 직권상정기도를 규탄하며 반드시 저지할 것을 결의-4박5일의 노상농성에 들어가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경 50여명의 수사관으로 경기-진보연대 사무실을 전격압수수색하다. 경찰은 쌍용자동차 관련이라면서도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는 전국농민회 총연맹 경기도연맹과 6.15남측위 경기본부의 자료와 기기 등을 압수해가다.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민주노총이 '22일부로 모든 가맹산하 조직에 총파업에 돌입' '선언기자회견' 을 열다. 임성규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쌍용차 공권력 투입을 규탄하고, 올바른 쌍용자동차 정상화를 통한 총고용쟁취를 위한 것이자, 비정규법과 미디어법, 최저임금법 등 이른바 MB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함"이라며 총파업 돌입을 선포하다. 임 위원장은 공권력 투입은 정부와 사측에게 더 이상 사태해결의 의자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미디어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 시도 움직임을 강력하게 비판하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삭발식에는 임성규 위원장 신승철 사무총장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이 함께 하다.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2,000여명의 신문.방송기자 등 언론인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 처리에 반발하며 '미디어법 폐기 직권상정반대 3차 총파업 출정식' 을 가지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회사 임성규 민주노총위원장 민주당 천정배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창조한국당 이용경의원 진보신당 노회찬대표 등의 연대 결의발언이 있었음. 언론노조는 출정선언문에서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은 정권, 재벌 및 수구족벌 언론의 사악한 삼각 동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구히 지속하기 위해 고안해낸 흉악한 무기"라며 "우리의 투쟁은 1년여 지속되어온 언론악법 저지 투쟁을 승리로 마감하는 끝장 투쟁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최후의 일인까지 몸을 내던지는 전면 투쟁이 될 것"이라고 결의하다.

21 ----------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언론입법 비정규직악법저지 4박5일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언론악법 직권상정반대긴급기자회견' 을 열고 "직권상정 강행 시에는 전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정권퇴진운동을 벌일 것"이라며 직권상정 중단을 촉구하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의 여는 말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박순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대표 등은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과 김형오 의장이 장기집권, 영구집권을 위해 언론을 장악하는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다. 마지막으로 이원기 한 대련 의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국회본회의장 의장석을 기습점령한 한나라당은 이윤성국회부의장이 김형오의장을 대신해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등 언론관계법과 금융지주회사법 등 4개 법안을 날치기로 직권상정하여 불법처리하다. 이윤성부의장은 상정안건을 심사보고 경과보고도 없이 질의와 토론도 생략한 채 곧바로 표결에 부쳐 신문법은 출석 163명에 152명 찬성으로 가결했고 방송법은 의결정족수에 못미치는 145명만 투표에 참가 찬성 142표 기권3표로 사실상 부결되었으나 5분후에 이 부의장이 재투표를 선언 153명 출석에 150명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하다. 양당으로 온 몸으로 저지하려 했으나 숫적으로 월등히 많은 여당의원의 철통방어벽을 뚫지 못하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된안건을 같은 자리에서 재투표한 것은 일차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었을 뿐 아니라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행

위가 있어 논란이 이어지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방송법 재투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무효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다.

민주노총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언론악법 비정규악법 저지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언론악법 날치기처리조작에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무효투쟁에 적극 나설것을 결의하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통과된 미디어법은 모두 무효라며 한나라당이 적법성을 주장한다면 정권퇴진 운동을 펼칠 것이다. 고 하다. 한편 이날 8시부터 같은 자리에서 '언론악법비정규직악법저지문화제'를 열고 이날 날치기 처리된 미디어 법의 원천무효임을 결의하고 최상재언론노조위원장 홍희덕민주노동당의원 조승수진보신당의원 등 결의발언과 언론노조 노래패 등 문화공연이 이어지다.

충무로 창미디어에서 후원회 소식 213호 교정작업을 하다 권오헌 임미영

22 ----------

용산국방부 정문 앞에서 '평통사주최로 23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비공개 밀실회담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국방부에서 23차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사전에 이번 회의 의제와 개최 사실 조차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비공개 밀실회담'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미 양측 부차관보급 인사가 참여하는 SPI 회의는 통상 2개월 마다 양국을 오가며 열리며, 한미간 주요 군사현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SPI회의는 지난 6월 16일 한.미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열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군사현안 후속 발전방향이 협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의 규탄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 등 공동주최로 '한나라당 의회폭거규탄 비상시국회의와 회의결과 발표기자회견'을 열다. 언론악법내용과 문제점을 신태섭교수가 발표하고 금융지주회사법 주요내용으로 문제점을 사회자인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표하다. 또한 재투표 및 대회투표 호력에 대한 법적검토 문제를 민변 송상교 사무차장이 설명하다 이어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날치기로 불법처리된 언론악법의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를 실질화하기위한 범국민적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하다. 또한 한나라당 김형오 이윤정 안상수 고흥길 나경원진성화 강승규 신지호 이상득의 우언을 언론악법 9적으로 규정하다.

태국 푸켓에서 열린 제 16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P)외교장관회의가 의장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되다. 의장국인 태국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39개 항의 의장성명에서 이북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규탄하는 내용과 미국 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규탄하는 내용을 함께 담다. 성명의 7항에서는 '<북한> 행동이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임으로 모든 회원국들에 안보리 결의1874호를 충실히 이행할 것과 9.19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모든 회원국들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는 치를 삼가고 자제력을 발휘할 것을 기대했다'고 적다. 그러나 8항세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사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며 '조선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조선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며 6자회담은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고 적시하다. 이어 '조선은 반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조선반도분단과 미군의 존재에 따른 독특하고 특별한 조선반도의 안보환경을 강조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조선반도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수적 요소'라고 말했다고 밝히다.

정동 프란시스코 성당 4층에서 사회원로들과 시민사회단체 각계대표 80여명이 모여 '용산참사' 해결 촉구하는 시국선언 발표하다. 참가자들은 "참사 희생 철거민들의 참혹한 시신이 순천향병원 영안실 냉동고에 갇혀 있지 않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용산참사의 올바른 해결 없이 이 정권에서 어떠한 민주주의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에는 김상근 6.15남측위 상임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청화 스님. 함세웅 신부 등 사회원로 31명을 비롯해, 종교계 118명, 정당 86명, 노동.교육.시민.인권.언론.문화.지역 등 664명이 참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강진구 집행위원장과 청학연대 김복기님을 면회하다. 이날 민원실에서는 회원 박석삼님과 촛불관련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김동완 김승칠 권승우님과 만나 면회를 함께 하고 서로 면회일정을 공유하다. 임미영 모성용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미디어법 불법통과 철회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다.

23 ----------

촛불관련 하여 불구속 재판 중인 모성용부회장의 재판이 열

리다. 재판에서는 증인신청하고 10월 6일 10시 30분으로 다음재판 잡음

24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소식 213호 발송작업이 있었습니다. 문상봉 박희성 김영식선생님과 조순덕어머니, 신현부, 박윤경, 임미영, 모성용 함께했습니다.

평택쌍용차 정문 앞에서 사회원로 31명 종교계121명 정당인86명 민중운동 43명 시민운동 24명 교육계 26명 노동계 59명 사회운동 113명 인권운동 77명 언론계25명 문화예술계 33명 지역운동 26명 등 674명이름으로 각계대표 40여명이 함께 하여 '쌍용차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원로대표 시국선언발표기자회견' 을 열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여는 말 명진스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명예의장 홍희덕 민주노동당의원 등 각계발언이 있었고 이강실 진보연대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그러나 이날 사회각계의 시국선언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쌍용차구사대들은 고성능 마이크로 기자회견을 방해책동하다. 이날로 경찰헬리콥터는 도장공장위를 비행하며 최루액을 내리 붓고있었음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범민련남측본부 이경원사무처장을 면회하다 건강도 좋아보였고 앞으로 있을 법정공방에 대비 열심히 심신을 단련하고 있다고 하다 이날 면회는 이경원사무처장의 부인 김부일님과 권오헌명예회장이 함께하다.

성공회대학교 김아무개 부총학생이 이날 새벽 서울 장충동에서 경찰에 강제연행되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부총학생은 집시법 등 위반사례로 경찰로부터 출두요구서도 받은 바 없다고 하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중부경찰서 앞에서 강제연행 규탄과 석방촉구기자회견을 열다.

한미연합사(사령관 월트.샤프))는 이날 '오는 8.17~27일까지 <09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 실시한다고 알리다. 유엔사는 북측에 <09 UFG연습은 방어군사준비태세연습이며 어떤면에서도 도발행위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고 밝히다. 연합사는 이어 <09FG연습> 은통상적인 연습으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한미동맹의 능력을 향상시키기위한 방어연습이라고 강조하다. 또한 '이번연습은 기존의 <작계 5027> 대신 새로운 한미공동작전계획을 올 7월까지 작성하는 목표 추진해 왔었다' 며 미군10,000여명 한국군54,000여명을 비롯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등 4000여 단체에서 40만명이 참가하는 최대규모의 훈련이라고 하다.

25

청주여자교도소로 범민련탄압관련 수감 중인 오순완 장민경님을 면회하다. (면회기보심) 노혁 도은주 모성용 함께하다. 또 평택 쌍용자동자투쟁 지원 가던 중 임미영 사무국장 연행되어 수원중부서로 항의방문 겸 면회를 하다. 임미영사무국장은 행진대열과 합류하기 위해 가던 중 일행 3명과 함께 구사대에 고착되어 있다가 경찰에 강제연행당하다 집회 중 연행된 9명과 함께 수원중부경찰서로 이송되어 유치된 후 변호사접견 후 사실 진술하고 유치장에 갇히다. 모성용 구노회 이광렬 강성철님 항의 방문하고 접견하다.

서울역광장에서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 등 20,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방송장악 장기집권획책 의회폭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규탄 언론악법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 가 열리다. 최공기 사회로 정세균 민주당대표 강기갑 민주노동당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대표 노회찬 진보신당대표 등 야 4당대표등 결의발언과 시민사회진영에서 정진우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최상재 언론노조회장 '고대녀' 로 잘 알려진 김지윤 대학생행동연대 상임대표 등이 미디어 법 날치기 처리 규탄과 원천무효를 선언하다. 참가자들은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한도숙 전농의장 진영종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무처장이 나누어 읽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의 만행 규탄 10월 보궐선거와 내년 지방선거투표 등을 통해 이명박성원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다. 발언중간에 대학생 노래패와 율동패들의 문화공연이 있었음

마석모란공원 열사묘역 고 정유미 열사묘소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진보연대 통일광장 양심수후원회 여성단체 등 전민특위 소속단체와 남편 자니.클라인 정유미열사 친지들 50여명이 함께 하여 '정유미열사 1주기 추모식' 이 열리다. 손미희 전민특위 전 집행위원장 진행으로 한상열 전민특위 남측본부위원장의 추도사 정유미동지 벗 김익태변호사의 약력소개 김규철 남측본부감사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추모사, 남편 자니.클라인의 가족인사(추모의 인사글)등이 있었고 <민들레처럼>을 추모의 노래로 합창하면 헌화하는 것으로 마치다.

26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주최' 로 '2009년 주한미군 내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실현 한마당-<전쟁없는 평화세상 미군없는 통일세상>' 을 열다. 전국각지에서 온 600명의 평화협정 실현운동 추진위원

들이 함께 한 가운데 문예창작단 "들꽃"의 율동공연으로 시작 MB정권에 맞서 싸우는 주병준 무건리주민대책위원장 용산참사 이상림고인의 아드님 이상연님,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등 평화협정 체결촉구결의발언이 있었고 미소정 어린이가 여는 말을 하다. 이어 송경동시인의 시를 송바울님이 대신읽었고 노래패 '노찾사'의 노래공연, 박석분 평통사 회원팀장이 올해 진행된 평화협정 실현운동을 보고하다 이어 각 지역 부문별 추진위원 소감발언 '바닥소리'의 창극공연 강안항린교회 남성중창단의 노래공연 등으로 진행되다. 이어 1989년 임수경 전대협대표와 판문점을 넘어왔던 문규현신부님의 평화주제연설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풍선을 불어 만든 평화협정망치로 비핵개방. 3000구상, 한미동맹, 대북침략전쟁연습 PSI 주한미군 등 분단장벽을 부수는 퍼포먼스등 행사를 마치다.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평통사 범남본 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35개 단체가 함께 하여 '정전56돌 남북관계 횡족 평화협정체결촉구 반전평화 대회'를 열다. 광주 전남 평통사 안희만 운영위원 사회로 노수희 범남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수영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박무식 안동평통사 사무국장 등 결의발언과 민변 장경욱 변호사가 오바마대통령에 보내는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촉구서한을 낭독하고 윤한탁 실천연대 대표와 한찬욱 사월혁명회 사무국장이 미대사관에 전달하다.

27 ----------

수원중부 경찰서에 부당하게 연행되어 있던 후원회 임미영 사무국장 외 3명이 연행 46시간만에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풀려나다. 오전에 김호현회장과 박희성선생님 노사과연 노정협회원들의 면회가 있었고 오후에 임기란민가협전의장 이영의장 조순덕 양영주어머니 권오헌명예회장 모성용부회장과 면회중 풀려나다. 다함께서울로 와 저녁을 나눠먹으며 조촐한환영식을 갖다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전국언론노조 주최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여 '언론노조 최상재위원장 체포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석방을 촉구하다 이날 아침 경찰은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경기도 파주시 자택 앞에서 불법체포 영등포경찰서로 강제연행조사하고 있었음 경찰이 갖고 온 체포영장에는 집시법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혐의 등이라고 했지만 최위원장은 정부.여당 언론장악 불법강행처리에 총파업으로 맞서 언론자유의기본권을 지키려한 정당한 활동이었을 뿐이다. 언론노조 김순기 부위원장 민주노총 배강욱 부위원장 등 규탄발언과 한겨레 신문노조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하다.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지나 23일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의장성명에서 '일부나라들이 6자회담재개 촉구'한 것과 관련 '6자회담이 왜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되었는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 언론들이 보도하다 대변인은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참가국들이 유엔안보리를도명하여 우리(이북)의 위성발사 권리까지 백주에 강탈하려드는 무모한 짓만 벌이지 않았어도 사태를 오늘의 지경에 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며 '지금 6자회담을 주장하는 참가국들은 애초에 회담을 파괴하고 대결을 발단시킨 처신에 대해서는 고집스럽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비난하다. 또한 '6자회담밖의 일부나라들이 문제의 이러한 배경과 본질을 모르고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6자회담 재개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백해무익하다면서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는 남들이 6자회담에 나오라 하면 나오고 나오지 말라하면 안나가는 그런 나라로 보려는 것 부터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고 강변하다.

정전협정 56동을 맞아 지난 26일 평양의 4.25문화회관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6돌경축보고대회'가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보도에 따르면 보고대회에서 김영춘인민무력부장은 '조국해방전쟁은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맞서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주화를 영예롭게 수호한 정의의 반제혁명전쟁이었다며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처하는 미제침략자를 처물리치고 역사적 승리를 이룩한 제 2의 해방의 날로 조국청사에 빛나게 아로 새겨져 있고 강조하다 또한' 미국과 남조선 호전세력들 일본반동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제재소동과 군사적도발책동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적들의 제제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다.

28 ----------

화성이주노동자보호소에 강제단속으로 수감중인 이디오피아에서 온 외국인노동자 레디아(Redia)씨가 사무국으로 전화를 해 보내준 영치물과 영치금에 대한 감사인사 전해오고 또 한글을 몰라 영문으로 된 잡지를 원하여 후원회에서 면회를 가는 일과 영치물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다. 레디아씨는 현재난민인정 소송중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안병욱)은

1994년 에 있었던 이른바 '문인간첩단사건' 은 국군보안사 열부가 고문 등으로 날조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패히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히다 민간인수사권이 없는 보안사가 이른바 '문인 지식인 간첩단사건을 조작 문학평론가 겸 중앙대 강사인 임헌영씨, 소설가 이호철씨, 문학평론가겸 경희대교수 김우종씨, 문학평론가 겸 국민대교수 장병희씨, 소설가 정을병씨등을 기소했던 것은 이들이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문인서명을 했고 일본에서 교포가 발행하는 반정부성향의 한양지에 기고한 것을 빌미로 했었던 것' 이고 이들에게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씌운 것임

29 ----------

평택쌍용차 공장정문 앞에서 종단의료단체 와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등 공동으로 "쌍용자동차 평화해결 및 생필품전달 기자회견"을 열다. 문정현신부의 여는 말에 이어 불교대표 개진곤대표 등 결의발언과 의료단체 대표의 식수 의약품 전달의 절박성을 밝히는 발언을 하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생수를 차량에 싣고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구사대의 폭력적인 제지로끝내 식수조차 차입못하다. (권오헌 다녀오다)

도렴동 총리부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주최로 '민간교류 가로막는 통일부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통일부는 6.15남측위 학술본부가 다음달로 중국 심양에서 북측과 실무접촉을 위해 연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현남북관계상황과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 등으로 거부 통보를 보내오다. 참가자들은 통일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에서 북에 대한 물자지원 차단과 방북불허초치에 이제 제 3국에서의 민간교루까지 차단시키는 것은 남북관계의 숨을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고 항의하다.

30 ----------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구속노동자후원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인권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주최로 '이명박 정권의 기만적인 '8.15 사면' 규탄 및 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 '을 열다.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사회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의 여는 말에 이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건설연맹노조의 유기수위원장이 양심수사면촉구발언을 하다. 또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 인 이정훈님의 부인 구선옥님, 촛불양심수 최성훈님, 용산참사유족 이성연님의 사면 석방촉구 연대사가 있었음. 마지막으로 민가협 이영 상임의장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친 후 이광렬 구노회사무국장과 임미영 양심수후원회사무국장이 청와대 민원실에 '공안탄압 중단과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지(3,500여명)' 를 제출하다.

김호현 모성용 함께하다. ('우리의 주장' 참고)

정부당국에 따르면 이날 아침 6시 17분경 거진선적 체낚기어선 한 척이 동해 공해상에서 복귀하던 중 저진 동북쪽 20해리 인근에서 북측경비정에 의해 예인 (북방한계선) 되었다고 하다 북측은 해사당국간 통신망으르 통해 이날 오전 장전항으로 예인된 800연안호 는 해당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알려왔다고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다음달 초에 있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차기 회장국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다 이는 인권과 관련없는 인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기구축소 등 ICC의 장국을 감당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알려져 인권후진국으로서의 국제적 망신을 사다.

31 ----------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평통사주최로 "기획재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을 지렛대로 국방개혁을 이끌어 내고 복지재원 마련하라!"라는 주제로 92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리다. 인천평통사 류정섭 사무국장의 사회로 평통사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의, 사회진보연대 수열 사무처장
주정숙 평통사공동대표의 국방예산 실태와 삭감 요구발언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인천대 정서진 공대학생회장이 기획재정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이 낭독하는 것으로 마치다.

서초동 법원 앞에서 6.15실현청년모임 '소풍' 서울청연단체협의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공동으로 김은혜씨 '국가보안법적용연행 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김은혜씨는 30일 성동구 왕십리 자택에서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국정원 수사관에 의해 체표 국정권으로 강제연행되었음 이날 체표 적부심이 있어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되다. 김은혜씨는 6.15남측우 청학본부에서 일할 때 2004년 3월 중국심양에서 범청학련 북측본부 성원을 만나 범민련 범청학련 강화 등 지령을 받고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함.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명예회장의 여는 말 '소풍' 김선경대표 서청협대표 등 석방촉구 발언과 남편 김영준씨의 가족발언 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절대안정해야 할 임신 7개월 김은혜씨 즉각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2009년 8월 15일 ▌구속노동자후원회 양심수후원회 조사집계

번호	이름	소속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수감지	적용법규	만기일	기/미결
1	강형준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안성경찰서			
2	강진구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사건	08-9-27	서울구	국보법	항소중	미결
3	권승일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	20097.16	평택구206			미결
4	권순옥	기타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9-4-22	인천구	병역법		기결
5	길준영	노동자	ASA 노조(금속)	"노조인정고용승계 투쟁"	09-2-2		폭력		미결
6	김명호	민교협	전성균관대 교수	석궁사건	2007.1.17	의정부교2068		2011년1월	기결
7	김을래	금속노조쌍용차지부	부지회장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	20097.28	평택구218			미결
8	김응조	충남건설기계지부 당진지회	조직차장	당진 현대제철소도체협약쟁취 투쟁	20097.3	서산구292			미결
9	김정욱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정책국장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	20096.29	평택구213			미결
10	김종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	20097.10	평택구211			미결
11	김종표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안성경찰서			미결
12	김종훈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안성경찰서			미결
13	김주종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안성경찰서			미결
14	김태수	범한택시노조	대의원	범한택시노조민주화투쟁	20042.13	영등포교1071		2014년2월	기결(10년)
15	김학주	이주노동자(중국교포)		국가보안법위반건	200510.	전주교2509		2010년 10월	기결(5년)
16	김기주	노동자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추모전국노동자대회	09-5-16	대전교1634	집시		미결
17	김달식	노동자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추모전국노동자대회	09-7-5	대전교2756	집시		미결
18	김대원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1-23	서울구187	"특공화염병"		미결
19	김동구	기타	언소주	조중동광고기업불매운동	09-7-14	서울구3424	특기법		미결
20	김선남	학생	조선대	이적단체가입	2009-05-20	광주교064	"국보,집시,특공"		미결
21	김성일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사건	08-9-27	수원구302	국보		미결
22	김수억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07년 기아차비정규직 파업	09-1-6	수원구335	업방		미결
23	김순진	노동자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비정규직복직요구	09-2-9	울산구38	업방		미결
24	김영익	노동자	저항의 촛불 기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9-2-27	영등포구428	병역법		미결
25	김영익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9-6-10	영등포구428	병역법		기결
26	김완희	노동자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추모전국노동자대회	09-6-12	대전교1639	집시		미결
27	김재호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1-23	서울구171	"특공화염병"		미결
28	김정동	재야	민주노동당	이적표현물인터넷게시	09-6-30	의정부교1314	"국보,집시"		미결
29	김주환	재야	전철연(용산신계)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1-23	서울구20	"특공화염병"		미결
30	김하얀	기타	홍익대졸	한총련불법퇴 등	09-6-24	영등포구4167	"국보,집시"		미결
31	레다(Reda)	이주노동자(이디오피아)		이주노동자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95	화성보호소			미결
32	미낄리미까	이주노동자(콩고)		이주노동자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96.15	화성보호소			미결
33	박세준	금속노조인천지부	사무국장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	20097.6	평택구214			미결
34	박정태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	망향휴게소노조연대투쟁(법정구속)	20084.29	마산교1670		2009년8월	기결(1년6월)
35	박종만	촛불시민	실업노동자	용산참사규탄 촛불집회(3/7)	20093.11	서울구7			미결
36	박경식	재야	개인	일심회	07-2-1	광주교5051	국보	2010/08	기결
37	박은국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9-7-3	성동구406	병역법		기결
38	박종구	노동자	화물연대	613화물연대총파업	09-6-24	포항교3061	집시		미결
39	박종근	노동자	건설노조(부울경남)	부산전기원노동자파업	09-6-28	부산구6052	집시		미결
40	블라미르셀	이주노동자/콩고		이주노동자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7.1	화성보호소			
41	손정목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4	대구교45	국보	2010/10	기결
42	신성원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이젠텍 연대투쟁(07년)	08-10-12	평택구203	업방		미결
43	안홍열	학생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8-6-23	청송교1144	병역법	2010/02	기결
44	양동규	금속노조경기지부	지부장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	20097.14	수원구322			미결
45	양태조	노동자	민주노총	한미FTA반대(07년) 등	08-1-7	여주교270	"집시특공"	2010/01	기결
46	오동규	전북건설플랜트군산지부	조합원	쌍용차문제정부해결촉구노동자/민중대회(7/25)	20097.28	평택구215			미결
47	오순완	재야	6자회담촉구충북본부	범민련 보안법위반사건	09-5-10	청주여	국보		미결
48	오정민	재야	개인	양심에따른병역거부	09-6-2	서울구2572	병역법		기결
49	유정희	원일교통노조	해고노동자	원일교통노조민주화투쟁	20089	안양교1487	항소중(2년)		
50	윤기진	재야	범청학련	범청학련한총련불법퇴	08.228	대전교005			
51	유용완	노동자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추모전국노동자대회	09-5-16	대전교1791	집시		미결
52	윤주형	재야	전농충북도연맹	범민련 보안법위반사건	09-5-10	청주교536	국보		미결
53	이광래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안성경찰서			미결
54	이기호	촛불시민		쌍용차문제정부해결촉구노동자/민중대회(7/25)	20097.28	평택구216			미결
55	이민영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안성경찰서			미결

번호	이름	소속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수감지	적용법규	만기일	기/미결
56	이상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평택경찰서			미결
57	이상호	"인터넷" "386모임"	대표(사무직)	애국촛불 전국연대 공안탄압(서울청 광역수사대)	20096.2	서울구105			미결
58	이승렬	울산해고자협의회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회원	쌍용차문제정부해결촉구 노동자/민중대회(7/25)	20097.28	평택구217			미결
59	이영춘	금속경기북부지회	조합원	쌍용차문제정부해결촉구 노동자/민중대회(7/25)	20097.28	평택구212			미결
60	이경원	재야	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 보안법위반사건	09-5-10	서울구63	국보		미결
61	이규재	재야	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 보안법위반사건	09-5-10	서울구97	국보		미결
62	이길준	군인	의경	촛불집회진압 양심선언	08-8-7	여주교425	명령불복종	2010/08	기결
63	이대근	노동자	화물연대	613화물연대총파업	09-6-13	포항교3057	집시		미결
64	이동우	노동자	기아차 화성(사내하청)	임단협(07년 8월)	08-11-2	수원구334	업방		미결
65	이라즈	이주노동자이란		이주노동자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5.12.9	화성보호소	행정소송중		행정소송중
66	이승	기타	언소주	조중동광고기업불매운동	09-7-14	서울구3208	특기법		미결
67	이영도	노동자	민주노총(울산)	현대미포조선비정규직복직요구	09-2-9	울산구35	업방		미결
68	이정훈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06-10-24	전주교2510	국보	2009/10	기결
69	이진강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6	안동교3010	국보	2009/10	기결
70	이충연	재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1-28	서울구29	특공		미결
71	이희만	노동자	건설노조(포항)	파업(포스코 농성)	06-7-13	포항교3010	"업방폭력"	2010/03	기결
72	이희철	재야	개인	한총련불탈퇴 등	09-6-13	광주교5041	국보		미결
73	인태순	재야	전철연	용산참사진상규명촉구	09-3-3	서울구241	공방		미결
74	장민경	재야	615남측위 충북본부	범민련 보안법위반사건	09-5-10	청주048	국보		미결
75	장민호	재야	개인	일심회	06-10-24	대전교4009	국보	2013/10	기결
76	장영희	재야	전철연	용산참사규탄	09-4-27	서울구216	"특공협박"		미결
77	장재석	노동자	화물연대	613화물연대총파업	09-6-24	포항교3062	집시		미결
78	전승욱	전국발전노조	해고노동자	애국촛불 전국연대 공안탄압(서울청 광역수사대)	20096.2	서울구137			
79	정삼례	재야	전철연흑석동	용산참사규탄	09-4-27	서울구243	"특공협박"		미결
80	정영철	재야	개인	친양고무사건	08-12-5	서울구153	국보		미결
81	정창수	재야	개인	07년한미FTA문서공개	08-12-19	서울구3750	공무상비밀누설	항소중	미결
82	정창화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07-11-19	충주구456	"업방특공"	상고중	미결
83	조문경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안성경찰서			
84	조순동	노동자	화물연대(대전)	망향휴게소 노조연대활동	07-10-22	순천교1280	"업방특공"	2010/02	기결
85	조익렬	노동자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추모전국노동자대회	09-5-16	대전교987	집시		미결
86	조인환	재야	전철연(성남단대)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09-1-23	서울구145	"특공화염병"		미결
87	지성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안성경찰서			미결
88	차호배	노동자	화물연대	박종태열사추모전국노동자대회	09-7-4	대전교3038	집시		미결
89	천춘배	노동자	화물연대(부산)	6월총파업(08년)	08-10-21	부산교415	폭력	2010/04	기결
90	최국종	촛불시민	실업노동자	용산참사규탄촛불집회(2/4)	20092.4	영등포구3458	항소중(3 년)		항소중
91	최노훈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8/5-경찰특공대 투입)	20098.8	안성경찰서			미결
92	최병승	금속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복직 투쟁	20095.16	울산구33			미결
93	최기영	재야	민주노동당	일심회	06-10-26	대전교4003	국보	2010/03	기결
94	최은아	재야	범민련남측본부	범민련 보안법위반사건	09-5-10	서울구221	국보		미결
95	최한욱	재야	실천연대	실천연대사건	08-9-27	서울구76	국보	항소중	미결
96	한상기	노동자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노조	이랜드-홈에버연대투쟁(07년)	08-11-20	광주교3350	업방	항소중	미결
97	허현무	민주노총	정치국장	2009 메이데이촛불집회	20095.2				미결
98	Zam Lankhai	이주노동자버마		이주노동자강제단속(난민인정 소송 중)	20093.18	화성보호소	.		
99	현철	애국촛불전국연대	중앙위원	09 용산촛불/메이데이촛불집회	20097.31	서울구111			미결
100	김학현	촛불시민		09 메이데이촛불집회	20098.6	서울구151			미결
101	우병국	금속노조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4	평택구222			미결
102	조광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4	수원구305			미결
103	김종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5	안양교2056			미결
104	김종훈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5	안양교2045			미결
105	김주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5	안양교2033			미결
106	박정민	민주노동당경기도당	학생위원장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5	수원구치소		수번미확인	미결
107	안창호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5	수원구308			미결
108	이광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5	안양교2046			미결
109	강동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10	강현국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09 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안산상록경찰서			미결

번호	이름	소속	직책	사건명	구속날짜	수감지	적용법규	만기일	기/미결
111	강환주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중부경찰서			미결
112	고동민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13	권순만	금속노조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구221			미결
114	권혁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남부서			미결
115	김혁	금속노조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남부서			미결
116	김경수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성남수정경찰서			미결
117	김남수	금속노조쌍차창원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18	김동수	시민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남부서			미결
119	김득중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20	김월조	금속노조쌍차창원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성남수정경찰서			미결
121	김재환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22	김정운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중부경찰서			미결
123	문기주	금속노조쌍차경비지회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성남수정경찰서			미결
124	박권규	금속노조쌍차창원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성남수정경찰서			미결
125	박기용	금속노조쌍차창원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안산상록경찰서			미결
126	박대웅	금속노조쌍차창원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성남수정경찰서			미결
127	박승순	금속노조쌍차창원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안양교2093			미결
128	박중현	금속노조쌍차창원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성남수정경찰서			미결
129	서민식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30	서진철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31	선호식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남부경찰서			미결
132	양진식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구치소		수번미확인	미결
133	양형근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남부경찰서			미결
134	유세종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중부경찰서			미결
135	이상복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수원구치소		수번미확인	미결
136	이창근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37	이태환	금속노조쌍차창원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안산상록경찰서			미결
138	임창호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39	정병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40	정성일	금속노조쌍차창원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41	정주용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42	조만희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성남수정경찰서			미결
143	주경식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44	최기민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45	최영호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46	한상균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지부장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47	한상천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성남수정경찰서			미결
148	한일동	금속노조쌍용차지부		09쌍용차정리해고반대파업	20098.6	평택경찰서			미결
149	윤창호	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조직국장	6.11화물연대파업(박종태열사투쟁)	20098.9	대전동부경찰서			미결
150	나명수	학원강사(필명권태로운창)		09용산참사추모집회(기무사관련)	20098.11	종로경찰서			미결
151	김도연	금속노조구미HK지회	조합원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경기청 공역수사대)	20098.11	수원남부서		수감지 재확인요	미결
152	이병삼	금속노조구미HK지회	조합원	09쌍용차 정리해고 반대파업(경기청 공역수사대)	20098.11	수원남부서		수감지 재확인요	미결